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0권

자체연구보고서 10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0권

자체연구보고서

10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공동연구자

강서정 율하중학교 교사

우정민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성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연구요약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I. 서론**

본 연구는 경남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인 경남교육박람회에 대한 계속된 변화 요구와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경남 전 지역 학생·보호자·교사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대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남교육박람회가 나아갈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향**1.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교육 공유 활동 및 체험의 장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778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창원 외 지역의 참가가 어렵다는 비판에 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로 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경남교육박람회는 그동안 교육적으로 유익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요자들이 이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한계는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참가자 밀집도가 높고, 참여자가 체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밀도 있는 체험이 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2.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면담 분석

경남교육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획, 운영, 참가 등의 경험이 있는 교원 24명을 대상으로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 및 한계, 대안에 관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교원들은 체험의 질을 높이고,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체험관의 확대가 필요하며, 경남 전 지역에서 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로 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위 학교에 바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박람회와 같은 일방적인 홍보, 전시, 이론 중심의 전달은 지양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최근의 교육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행사의 내용도 대체해 나가야 함이 요구되었다.

3.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

실제 수요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폭넓게 보여준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와 경남교육박람회의 운영, 진행 등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교원들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원 중심의 대규모 전시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창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남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남 전 지역의 교육공동체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공공성과 지역성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2) 학교급별 대상에 맞추어 전문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3) 경남교육청의 성과 홍보의 기능의 경우 일방적인 전시와 정책 홍보의 효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일방적 홍보보다는 경남교육의 정책과 특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 활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제될 수 없는 부분으로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내용 전달과 홍보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도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5) 교육 현장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와 미래 교육 등 일상에

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교사들의 경우 기존의 수업 나눔 활동이나 수업 나눔 축제, 수업 연구 공동체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수업 박람회나 발표 대회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박람회의 한계로 지적된 사항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가중시켜 일상 교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업 공유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양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박람회와 같은 도 교육청 중심의 전시 행사 형태를 해체하고 지역과 참여자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일상 교육과 소통 중심의 교육 공유 활동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교육에 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용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대안의 모색

개별화 교육과 일상 교육의 강화,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등은 경남교육계의 일관된 방향성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박람회와 같은 대규모의 전시 행사의 형태를 해체하여 학교와 마을의 일상 교육 속에서 공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남 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학생 체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역량 강화 중심의 지속성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의 가야산 도서관 정글북과 예술교육원 해봄 등은 지역 학생 및 도민의 체험처로 기능하는 동시에 여가 활용 공간이 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채우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에도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외국어 체험 센터, 생활 체육 관련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와 마을 중심의 작은 행사의 확대를 위해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행사’는 전시성이나 성과 발표 위주에서 탈피한 일상 속에서의 공유와 소통에 중점을 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소극장이나 버스킹 무대 등을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점심 시간을 활용

한 교내 버스킹이나 마을과 함께 하는 정기연주회, 마을배움터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의 확대를 위해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의 축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교육 활동의 공유와 소통을 위하여 교사 간의 일상적인 수업 공유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넘어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교육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온라인 운영도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지역의 역량 있는 유튜브나 sns계정 운영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활동을 기획하여 일 방향의 홍보가 아닌 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1. 요약 및 논의

경남교육박람회가 오랜 시간을 이어져 온 경남 최대 규모의 행사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과 논쟁이 존재하였다. 주요 쟁점과 이에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남교육박람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혹은 권역별로 개최하는 것은 지역 간의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으나, 오히려 행사의 질이 하락하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며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규모만 축소된 행사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현재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교육 자료의 누적과 체계화 기능을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유사한 플랫폼의 활용도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업 나눔 한마당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효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후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본 연구는 미래교육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개별화된 경험과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반면,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미래교육테마파크, 미래 교육 선도 학교 개방 등을 통해

미래 교육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추후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1)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을 공교육 차원에서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체험관의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간 혁신 학교를 확대하고 자율 동아리 지원 및 시민 사회와의 연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사 간의 자율적인 수업 공유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온라인 공간에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4) 급변하는 시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미래교육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 제2장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 8 |
| 제1절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 8 |
| 제2절 새로운 대안을 위한 시사점 | 19 |
| 제3장 대안의 모색 | 44 |
| 제1절 가깝고 일상적인 체험처의 확대 | 44 |
| 제2절 학교와 마을의 작은 행사 | 53 |
| 제3절 교실을 넘어, 소통과 공유 | 63 |
| 제4장 결론 | 79 |
| 제1절 요약 및 논의 | 79 |
| 제2절 정책 제언 | 82 |
| 참고문헌 | 84 |
| 부록 | 85 |
| [부록1] 온라인 설문지 | 85 |
| [부록2] FGI 질문지 | 103 |

표 목차

| | |
|--|----|
|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 <표 1-2> 설문 응답자의 구성 | 5 |
| <표 1-3> 학생 설문 응답자의 해당 학교급 구성 | 5 |
| <표 1-4> 보호자 설문 응답자의 대상 학생 해당 학교급 구성 | 5 |
| <표 1-5> 교사 설문 응답자의 지도 관련 해당 학교급 구성 | 5 |
| <표 1-6>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6 |
| <표 1-7> 초점 집단 인터뷰 면담자의 구성 | 7 |
| <표 2-1>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설문 | 8 |
| <표 2-2> 경남교육박람회의 참석 경험에 대한 응답 | 8 |
| <표 2-3>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에 관한 평가 | 9 |
| <표 2-4>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에 관한 평가 | 10 |
| <표 2-5>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인터뷰 설문 | 11 |
| <표 2-6>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 19 |
| <표 2-7> 경남 도 내의 전시, 체험 등 교육 활동 제공에 대한 의견 | 19 |
| <표 2-8> 체험 형태에 관한 선호도 1 | 29 |
| <표 2-9> 체험 형태에 관한 선호도 2 | 29 |
| <표 2-10>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인터뷰 설문 | 20 |
| <표 3-1> 체험 시설의 권역별 분포 | 46 |
| <표 3-2> 체험 시설의 분야별 분포 | 46 |
| <표 3-3> 제19회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전체 일정 | 61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 | 16 |
| [그림 2-2]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 | 17 |
| [그림 2-3] 거주 지역(시, 군 단위)에서 교육 행사 개최시 참석에 관한 의견 | 20 |
| [그림 2-4] 학교급별 교육 행사의 분리 개최에 관한 의견 | 20 |
| [그림 2-5] 대상별 교육 행사의 분리 개최에 관한 의견 | 21 |
| [그림 2-6]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 22 |
| [그림 2-7] 아이톡톡,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 23 |
| [그림 2-8]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 24 |
| [그림 2-9] 유명 인사의 온라인 특강, 토크 콘서트 등에 대한 선호도 | 25 |
| [그림 2-10] 포럼이나 세미나 등 학술 행사 선호도 | 26 |
| [그림 2-11] 학교 외 학생, 보호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의견 | 27 |
| [그림 2-12] 학교 외 학생, 보호자 동아리 발표회에 관한 의견 | 28 |
| [그림 2-13] 경남 교육 철학 | 41 |
| [그림 2-14] 주요 기능의 분산 및 대체 방향 | 41 |
| [그림 3-1] 2020 경남교육 생태지도(기관 현황) | 45 |
| [그림 3-2]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의 외관과 체험 시설 | 48 |
| [그림 3-3] 예술교육원 해봄의 외관과 전시실 | 49 |
| [그림 3-4] 국립과천어린이미술관과 부산시립어린이미술관의 모습 | 49 |
| [그림 3-5]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 50 |
| [그림 3-6]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외관과 체육 체험 프로그램 | 50 |
| [그림 3-7]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안전 체험 프로그램 | 51 |
| [그림 3-8] 대구관문초등학교와 제주아라중학교의 교내 버스킹 사례 | 55 |
| [그림 3-9] 남해초등학교 학교 안 마을배움터 ‘별별극장’ | 56 |
| [그림 3-10] 마산의신여자중학교와 밀양밀주초등학교의 공간 혁신 사례 | 56 |
| [그림 3-11] 창원안남중학교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 57 |
| [그림 3-12] 마산무학여고 동아리에서 제작한 위안부 배지와 캠페인 활동 | 58 |
| [그림 3-13] 2018 경남 창원틴틴페스티벌 | 60 |
| [그림 3-14] 2018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포스터와 2019 행사 홍보 자료 | 61 |
| [그림 3-15] 2020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보고서(마산 신월초) | 67 |
| [그림 3-16] ‘더불어 숲’의 교육활동 모음집 공유 사례 | 68 |

| | |
|---|----|
| [그림 3-17]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 화면 | 69 |
| [그림 3-18] 수업 나눔 한마당 홍보 자료 | 70 |
| [그림 3-19] 구름학교 교실 축제 홍보 자료 | 71 |
| [그림 3-20] 교사 유튜버의 활동 사례 | 77 |
| [그림 3-21] 유튜브에서의 중학생, 고등학생 브이로그 검색 결과 | 78 |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남교육박람회는 2005년에 시작되어 계속 이어져 온 대규모의 교육 행사로서, 그동안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경남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였으나, 다양한 요구와 비판이 해를 거듭하여 제기되었음.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대규모 집합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경남교육박람회도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됨. 그러나 코로나의 종식 이후에도 경남교육박람회에 대한 변화 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전면화 및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박람회와 같은 형태의 행사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행정적 측면에서도 경남교육박람회에 대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많은 논의 끝에 경상남도교육청이 2021년을 마지막으로 경남교육박람회의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해당 행사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의 모색이 시급함.

‘박람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박람회란 일반 대중의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하며, 대량의 전시물을 특정한 공간에 집중시켜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것을 분류하고 진열하여 주최측이 목적하는 바를 불특정 다수에 과시하려는 이벤트이기도 함. 보통 엑스포로 칭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라틴어 엑스포노(expono)에서 따온 말로, ‘드러내다, 진열하다.’라는 뜻을 가짐. (신주백 2008; 김차규 2019 재인용)

따라서 경남교육 ‘박람회’라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경남교육에 관한 대량의 전시물을 특정 공간에 집중시켜 드러내고 진열함으로써 경남도민에게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전시 행사로서의 속성을 가지게 만들고, 이는 다원화된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추세와 반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 박람회의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코로나19로 전면 도입된 온라인 학습과 가속화된 4차 산업 혁명 등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교육 활동 공유의 장이 필요함. 이는 형태에 있어서 온라인으로의 행사로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정보와 교육 활동이 공유 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확대를 의미함.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행사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박람회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한 경우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온라인으로 형태만 전환한 대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 대안적 탐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안(2020)에 따르면,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학교 현장의 주요 의견으로는 전시성 행사 준비의 부담이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창원 외 지역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 전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다만, 교육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활동과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장으로서 순기능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런 기능은 유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함.

이 연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박람회’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활동 공유의 장의 모습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함.

첫째,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둘째,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활동 공유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적 행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함.

셋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대안을 검토하여 제언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분석 기준 | 주요 내용 | |
|-------------|------------------------------------|-----------------------|
| 기존 행사의 분석 |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 설문 조사 FGI |
| 대안의 모색 | 학생, 학부모, 교사 요구 및 대안적 행사 분석으로 대안 도출 | 설문 조사 FGI 사례 분석 |
| 전문가 검토 및 제언 | 전문가 집단에 의한 대안의 검토 및 정책 제언 | 전문가 간담회 |

1. 연구 내용

가.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 연구 내용: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분석 대상: 경상남도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경남교육박람회 관련 전문가 집단
- 분석 내용: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 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FGI

경남교육박람회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여 반영해야 연구 결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들은 보통의 교육 행사의 고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다른 행사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나. 대안의 모색

- 연구 내용: 새롭게 필요한 교육 활동 공유의 장애 관한 다양한 요구와 대안적 행사 사례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의 형태를 다양하게 제시함.
- 분석 대상: 경상남도 학생, 학부모, 교사 및 대안적 행사 사례
- 분석 내용: 대안에 관한 요구 및 대안적 행사 분석을 통한 대안 모색
- 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사례 분석, FGI

온라인 설문 조사와 FGI를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우수한 교육 행사 및 대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행사나 교육 활동 공유(소규모, 비대면 수업 연구 모임 등),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에 반영하고자 함.

다. 대안의 검토 및 제언

- 연구 내용: 대안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활동의 장애 관하여 정책 제언
- 분석 대상: 경남교육박람회 관련 교원
- 분석 내용: 대안에 관한 요구 및 대안적 행사 분석을 통한 대안 모색
- 분석 방법: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를 통해 대안의 교육적 효과, 실현 가능성, 행정적 운영의 측면까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실시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연구 방법

가. 설문 조사

경상남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 1~3학년은 제외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창원 외 지역의 참가가 어렵다는 비판에 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로 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설문 내용은 크게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교육 공유 활동 및 체험의 장에 관한 요구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음. 자세한 설문 문항은 첨부한 <부록 1>을 참고.

다음의 <표 1-2>~<표 1-6>은 설문 응답자 현황을 나타냄.

<표 1-2> 설문 응답자의 구성

| 구분 | 학생 | 보호자 | 교사 | 계 |
|--------|------|------|------|------|
| 응답자(명) | 2526 | 3959 | 1301 | 7786 |

<표 1-3> 학생 설문 응답자의 해당 학교급 구성

| 구분 | 초등4~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 | 계 |
|-------|---------|-------|-------|------|------|
| 명 | 536 | 1294 | 621 | 75 | 2526 |
| 비율(%) | 21.22 | 51.23 | 24.58 | 2.97 | 100 |

<표 1-4> 보호자 설문 응답자의 대상 학생 해당 학교급 구성

| 구분 | 유치원 | 초등1-3학년 | 초등4-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 | 계 |
|-------|------|---------|---------|-------|------|------|-------|
| 명 | 55 | 870 | 1,107 | 1361 | 491 | 75 | 3,959 |
| 비율(%) | 1.39 | 21.98 | 27.96 | 34.38 | 12.4 | 1.89 | 100 |

<표 1-5> 교사 설문 응답자의 지도 관련 해당 학교급 구성

| 구분 | 유치원 | 초등1-3학년 | 초등4-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 | 계 |
|-------|------|---------|---------|-------|-------|------|------|
| 명 | 38 | 154 | 316 | 430 | 330 | 33 | 1301 |
| 비율(%) | 2.92 | 11.84 | 24.29 | 33.05 | 25.37 | 2.54 | 100 |

<표 1-6>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지역 | 명 | 비율(%) |
|----------|------|-------|
| 고성 | 249 | 3.20 |
| 거제 | 632 | 8.12 |
| 거창 | 164 | 2.11 |
| 김해 | 1349 | 17.33 |
| 남해 | 100 | 1.28 |
| 밀양 | 165 | 2.12 |
| 사천 | 290 | 3.72 |
| 산청 | 62 | 0.80 |
| 양산 | 570 | 7.32 |
| 의령 | 58 | 0.74 |
| 진주 | 800 | 10.27 |
| 창녕 | 120 | 1.54 |
| 창원 | 2215 | 28.45 |
| 통영 | 513 | 6.59 |
| 하동 | 93 | 1.19 |
| 함안 | 217 | 2.79 |
| 함양 | 80 | 1.03 |
| 합천 | 52 | 0.67 |
| 경남 외 타지역 | 55 | 0.71 |
| 계 | 7786 | 100 |

나. 사례 분석

우수한 교육 행사 및 대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활동 공유(소규모, 비대면 수업 연구 모임 등)에 관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함.

타 시·도의 사례,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의 우수 사례도 포함하여 ‘교육 행사’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Discussion)

경남교육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획, 운영, 참가 등의 경험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함.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수렴함.

경남에 필요한 새로운 행사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관하여, 교육적 의미나 행사 운영 등의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수렴함.

<표 1-7> 초점 집단 인터뷰 면담자의 구성

| 구분 | 학교급(기관) | 박람회 관련 경험 | 비고 |
|-------|---------|-------------------------------|----|
| 면담자 A | 고등학교 | 행사 운영, 부스 운영 | |
| 면담자 B | 중학교 | 부스 운영, 학생 단체 관람 | |
| 면담자 C | 중학교 | 부스 운영 | |
| 면담자 D | 고등학교 | 부스 운영 | |
| 면담자 E | 초등학교 | 행사 연구, 일반 관람 | |
| 면담자 F | 중학교 | 행사 기획, 일반 관람 | |
| 면담자 G | 교육청 | 행사 기획, 일반 관람 | |
| 면담자 H | 중학교 | 학생 단체 관람 | |
| 면담자 I | 교육청 | 부스 운영, 일반 관람 | |
| 면담자 J | 교육청 | 행사 운영, 부스 운영 | |
| 면담자 K | 직속기관 | 행사 계획, 부스 운영 | |
| 면담자 L | 직속기관 | 행사 연구, 일반 관람 | |
| 면담자 M | 초등학교 | 행사 기획, 일반 관람 | |
| 면담자 N | 중학교 | 행사 기획, 부스 운영, 학생 단체 관람, 일반 관람 | |
| 면담자 O | 초등학교 | 일반 관람 | |
| 면담자 P | 직속기관 | 부스 운영 | |
| 면담자 Q | 중학교 | 참가 학생 동아리 지원 | |
| 면담자 R | 중학교 | 부스 운영 | |
| 면담자 S | 직속기관 | 행사 운영 | |
| 면담자 T | 중학교 | 행사 운영 | |
| 면담자 U | 초등학교 | 행사 운영 | |
| 면담자 V | 중학교 | 참가 학생 동아리 지원 | |
| 면담자 W | 초등학교 | 행사 기획, 부스 운영 | |
| 면담자 X | 초등학교 | 행사 운영 | |

라. 전문가 협의회

경남교육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획, 운영 등에 관련하였거나, 분석 결과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대안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분야의 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함.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안에 관하여 전문가 간의 토의와 검토를 통해 다방면에서 논의함.

제2장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제1절 |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1. 설문 조사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설문 내용은 아래 <표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경남교육박람회 관련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표 2-1>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설문

| 설문 내용 |
|--------------------------------------|
| 1)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 경남교육박람회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 3) 경남교육박람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설문의 응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 경남교육박람회의 참석 경험에 관한 응답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석하였다. | 15.12 | 20.86 | 14.76 |
| 학교 등을 단체로 참석하였다. | 20.86 | 10.56 | 28.59 |
| 부스 운영, 공연 등의 주체로 참석하였다. | 3.13 | 3.13 | 14.75 |
| 참석 의사가 없었으나,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다. | 4.75 | 2.02 | 4.77 |
| 참석 경험이 없다. | 56.14 | 63.43 | 37.13 |
| 계 | 100 | 100 | 100 |

경남교육박람회의 참석 이유는 <표 2-2>와 같이 나타나며, 특히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참석 경험이 없음이 50% 이상에 해당함. 원인으로서는 창원 지역 개최로 인한 물리적 거리, 홍보 부족 등이 꼽혔으며 가장 큰 원인이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나타남. <표 2-4> 참고.

참석자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여한 경우는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 20% 미만이었

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단체 관람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참석이 약 15%밖에 되지 않아경남교육박람회가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

참석한 경우에도 부스 운영, 공연 등의 주체로 참석한 경우는 학생, 학부모의 경우 3%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체적인 참가의 기회 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2-3>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에 관한 평가 (중복 응답 가능)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이 다양함 | 29.1 | 25.11 | 34.82 |
| 교육 내용의 유익함 | 25.69 | 19.4 | 14.45 |
| 우수 학교 사례, 교육 관련 학술 행사 | 11.05 | 11.67 | 23.44 |
| 각종 대회나 공모전이 학생에게 유익함 | 2.89 | 4.09 | 7.07 |
| 기업, 지역 사회 등의 참여로 진로 진학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8.16 | 12.15 | 19.29 |
|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수 있음 | 9.58 | 18.99 | 30.59 |
| 경남교육청의 성과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 | 12.39 | 16.75 | 22.52 |
| 기타 혹은 참석 경험이 없어서 모름 | 24.74 | 19.68 | 3.69 |

<표 2-3>을 보면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로 1)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음, 2)교육 내용이 유익함, 3)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수 있음, 4) 경남교육청의 성과와 주요 정책 등을 알 수 있음에 순서대로 응답함. 그러나 학생, 보호자, 교사 등 대상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

학생의 경우, 1)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음, 2)교육 내용이 유익함, 3)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을 순서로 응답함.

보호자의 경우, 1)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음, 2)교육 내용이 유익함, 3)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순서로 응답함.

교사의 경우, 1)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음, 2)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수 있음, 3) 우수 학교 사례, 교육 관련 학술 행사의 참여를 순서로 응답함.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경남교육박람회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요자들이 이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가 학생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학생 약 2%, 보호자 약 4%, 교사 약 7%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경남교육박람회 에 학생 대상의 공모전이나 대회는 큰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표 2-4>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에 관한 평가(중복 응답 가능)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 38.6 | 35.97 | 33.59 |
|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다양성 부족 | 12.19 | 13.79 | 9.27 |
| 참가자의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 | 17.3 | 16.17 | 20.29 |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 반복 | 14.65 | 15.71 | 22.75 |
| 학생, 보호자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부족 | 16.98 | 20.84 | 16.68 |
| 기업, 지역 사회 등의 참여 기회 부족 | 7.84 | 15.86 | 10.45 |
| 박람회의 준비나 참석으로 교직원 업무 가중 | - | - | 36.66 |
| 기타 혹은 참석 경험이 없어서 모름 | 18.49 | 10.46 | 4.53 |

표<2-4>를 보면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로 1)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2)학생, 보호자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부족, 3)참가자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 4)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됨에 순서대로 응답함. 그러나 학생, 보호자, 교사 등 대상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

학생의 경우, 1)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2)참가자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 3)학생, 보호자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부족을 순서로 응답함.

보호자의 경우, 1)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2)학생, 보호자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부족, 3)참가자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을 순서로 응답함.

교사의 경우, 경남교육연구정보원(2020)이 제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제시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박람회의 준비나 참석으로 교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문항을 추가하였음. 교사들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아 교사들의 경우에 경남교육박람회의 업무가 교육 과정 정상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박람회 준비나 참석으로 교직원 업무 가중, 2)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3)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됨, 4) 참가자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을 순서로 응답함.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한계는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참가자 밀집도가 높고, 참여자가 체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밀도 있는 체험이 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임.

2.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초점 집단의 인터뷰 설문 내용은 아래 <표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경남교육박람회의 참석 경험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표 2-5>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인터뷰 설문

| 설문 내용 | |
|-------|---|
| 1) |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최, 부스 운영, 우수 사례 발표, 학생 인솔, 관람객 참여 등 경험하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주시시오. |
| 2) |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이어갈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초점 집단 인터뷰는 표<1-3>과 같이 박람회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해당 집단은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 경남교육박람회의 기획과 운영, 부스 운영, 박람회 관련 영상 촬영 등 기술적 지원, 우수 사례 발표, 학생 동아리 지원, 학생 단체 관람 인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단 교사, 관리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의 장학사, 연구사 등 소속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대부분의 경우 ‘경남교육박람회’의 운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남교육박람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혁신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였음. 경남교육박람회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집단과 참가하는 대상 집단 모두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였으며, 공통적으로 박람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

면담자 I: (4일 간 운영하였을 때) 부스 운영에 교사들을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체에 부담이 있어 반드시 박람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2020년)에도 박람회를 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의 성과가 묻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면담자 C: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진 행사의 느낌이 되었습니다. 부스 운영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비슷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성과를 뽑내는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관성대로 하던 행사를 멈추고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문제, 양질의 체험 제공의 어려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운영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변화 또는 폐지에 동의하였음.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에 관하여는 크게 경남교육 성과 홍보, 체험 및 전시·공연 제공, 우수 사례 및 선도 학교 성과 공개 등으로 교사들에게 정보 제공,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정보 제공 등 일정 부분 기능을 해 온 것이 유의미하게 평가되었음.

면담자 A: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선도적인 수업들을 학부모들과 외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공교육의 질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G: 경남교육의 주요 성과를 알 수 있고, 앞으로의 경남교육 비전도 짐작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으로, 무엇보다 학교 현장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K: 분명 경남교육박람회는 경남교육의 성과를 홍보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어요. 교육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경남교육의 성과를 목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보호자, 일반 도민 등 학교 외부까지 경남 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고, 학교 수업의 선도적인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경남 교육과 공교육의 우수 사례를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였음.

면담자 B: 다양한 행사와 학교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전시된 점은 좋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참여하기도 했고요.

면담자 D: 저는 교육박람회에 부스 운영에 참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는 과정 및 운영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해마다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콘텐츠로 교육박람회가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면담자 O: 첫 학교에서, 첫 동료 선생님들과, 첫 교육 과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던 시절에 남 해에서 근무했었는데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여하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중 희망할 때에 출장을 내어 다녀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경남교육 박람회에서 본 다른 학교나 다른 사례들이 신기하여 몇 가지는 기록해두고 필요한 교구는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남교육박람회가 진부하고 업무의 과중으로 비취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고, 부스 운영이나 공연 참석 자체가 경험의 장이 되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함. 경남교육박람회는 참가 교사들에게는 우수한 교육 사례를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과정 운영을 돕고, 부스 운영이나 학생 지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성과로 평가되는 체험 및 전시·공연 등 다양한 경험 제공, 경남 교육의 성과 홍보, 우수 사례 및 선도 학교 정보 제공,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정보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함께 논의되었음.

우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경남교육박람회가 경남 소속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며, 경남신문사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 대상별, 학교급별로 적절한 내용 구성이 되기 힘든 점, 밀집된 장소에서 많은 부스 운영으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경남교육박람회에서 제공하는 체험이 깊이 있거나 교육 과정이 반영된 내실 있는 체험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학생과 보호자 설문 조사에도 드러나며, 전문가들도 경남교육박람회의 체험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음.

면담자 D: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한 줄 적게 하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행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도 교사의 부담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진짜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도장 찍기에 급급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면담자 M: 해마다 유사한 교육콘텐츠, 체험 프로그램들이 반복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그에 따른 교육 활동들의 변화된 모습이 잘 반영되었는가? 경남신문사와 도교육청이 공동주최에 따른 한계가 있지는 않은가? 교육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한 내용 구성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답자 R: 큰 전시장 안에 너무 많은 부스가 밀집하여 있고, 다른 곳에서는 공연이, 또 다른 곳에는 개별적 참여가 산재해,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고 정작 자신의 관심 분야의 체험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라고 봅니다.

또한 도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되어 창원 외 지역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운영 방식의 한계로 지목될 수 있음.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해마다 창원 지역에서 개최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창원 지역에만 혜택이 제공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평일 낮에도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평일 낮에 타 지역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주말에도 타 지역의 경우, 여유가 있는 학부모와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간 접근성의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면답자 D: 창원 외 지역의 학생들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평일 낮에 참가할 수도 없고, 원거리인 경우 주말에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도 더 안 되기도 합니다. 창원 행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에는 수학체험관이나 과학관도 있어서 평소에도 더 볼거리가 많은데도요. 농촌 지역 학생들은 사실상 (참가 자체가) 힘든... (도 단위의 행사가 아니라) 창원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면답자 I: 장소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박람회라는 형태의 특성상, 전시나 홍보는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교육 현장의 문제과 고민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성과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특히 교실의 우수 사례를 전시하는 형태로 인해, 교실 상황에 담긴 교사들의 수업 철학이나 고민 등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우수 사례가 일회적으로 전시되고 추후 실질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정보나 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움.

면답자 A: 일부 교사들의 우수 사례만 전시하고 설명하다 보니 대부분의 교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사례나 문제점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포장된 좋은 면만 각각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일부분의 사례가 경남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된 부분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나 실패한 사례들도 서로 공유하고 발표해야 진정한 교육 활동의 공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담자 I: (홍보의 의미가 있지만, 전시를 한다는 특성상) 모든 영역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하지 않으므로 걸만 보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으나 모든 홍보가 그러하듯 성과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여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위와 같이 교실 수업으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수업 공유 활동을 통해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던 행사의 목적에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전시’, ‘발표’의 형태로 인해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임. 참가하는 교사의 경우 개인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특히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교사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 등이 부족하고, 교사 개인에게 부담만 가중되어 참가 자체를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점점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면담자 A: 일부 운영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이 주말과 개인 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준비했음에도 강사료나 원고료, 지도비 등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말과 야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는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또 다른 교육 활동에 참여하라고 하니, 아무리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경남교육박람회 참여하여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면담자 B: 전시 위주다 보니 교사들에게 준비 부담이 있고...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참여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박람회에 한 번 다녀오려면 수업을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고, 주말도 반납해야하니 참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면담자 G: 박람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는 행사 자체로 많은 부담입니다. 특히 도 단위 행사는 그 심적 부담이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박람회가 꼭 필요하다면 초기에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업무담당자와 운영진은 역할이 일부에게 쏠리거나, 참여자의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직원 참여 희망자, 동아리, 연구회 중심으로 활동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발표의 장이 되었으면 하지만, 교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참석하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들었으나 도 단위의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의 행정적인 부담도 점차 증가해 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도 교육청 중심의 행사 운영은 오히려 창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도 단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부담에 비해 효과나 만족도가 낫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진부하다는 설문 결과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육에 관한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해 온 기능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남교육박람회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정보 제공에 미흡했던 것이 극복되어야 할 한계로 지적됨.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학교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왔으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의 질이나 교육 전문성은 하락하였고, 새로운 교육 트렌드나 정보의 제공과 혁신적인 교육 비전을 보여주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대전환의 관점에서 이러한 점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한계로 보임.

3.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림 2-1]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

경남교육박람회는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경남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홍보하는 장이었으며, 우수 수업 사례 및 선도 학교 성과 공개로 교사들의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해 온 주요 성과가 있음. 또한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최신 교육 트렌드 등을 제공하여 온 것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2]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박람회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음. 우선, 모든 학교급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 교육청 중심으로 해마다 창원 지역에서 개최되어 전시 및 체험 부스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운영 방식의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대상자에 맞추어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적절한 체험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고 제공되는 체험의 질도 하락하기 쉬움. 또한 해마다 창원 지역에서 개최하는 특성상 접근성의 격차로 인해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창원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는 해마다 운영과 참석의 부담으로 피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또한 경남교육청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전시와 홍보로 소통은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남교육의 정책과 특색을 알리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교사들의 경우에도 우수 수업 사례의 전시나 발표, 선도 학교 공개 등으로 교육 과정 운영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전시나 발표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 공유가 어려워 교육 현장에 연계하여 적용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준비 및 참석 부담이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됨.

내용적 측면에서도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제공되었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활동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미래교육의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함.

위와 같은 한계를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박람회의 운영 방식으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람회라는 형식적 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창원 지역에서 해마다 반복 개최되어 온 ‘도 교육청 중심의 전시성 교육 행사’인 경남교육박람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 가고 있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에 맞춘 다양한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교육을 담아야 하는 교육 행사로서 기능을 하는 데에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다양한 경험(공연, 전시, 체험 등) 제공, 경남교육의 성과 홍보, 교사의 교육 과정 지원, 새로운 교육 트렌드 및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한 기능로 보고 이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제2절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3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 새로운 대안을 위한 시사점

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설문 내용은 아래 <표 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표 2-6>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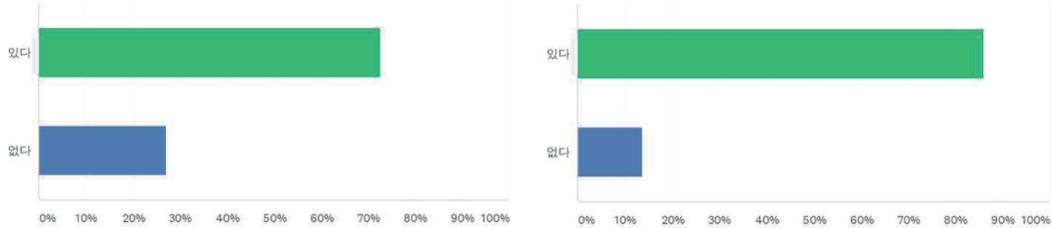
| | 설문 내용 |
|-----|--|
| 1) | 경남도 내에 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 나의 거주 지역(시, 군 단위)에서 교육 행사가 개최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3) | 학교급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4) | 학생, 보호자, 교사 등 대상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5) |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6) |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7) | 영상 공모전 등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하여 중계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8) | 유명 교육 인사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9) | 경남 교육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10)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보호자의 동아리 등 일상적인 교육 관련 네트워크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11)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보호자의 동아리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 12) |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의 응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7> 경남도 내의 전시, 체험 등 교육 활동 제공에 대한 의견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충분하다. | 21.81 | 10.71 | 28.82 |
| 아니다. | 30.13 | 51.16 | 50.88 |
| 해당 사항이 없거나 모르겠다. | 48.06 | 38.13 | 20.29 |
| 계 | 100 | 100 | 99.99 |

<표 2-7>를 보면 경남 도 내에 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보호자와 교사의 경우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해당함. 학생의 경우도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1%에 불과함. 따라서 경남 도 내에 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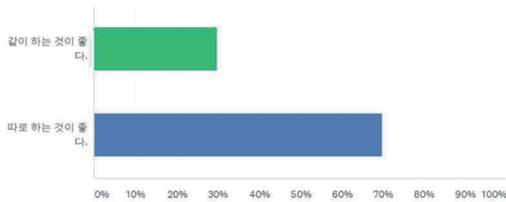


<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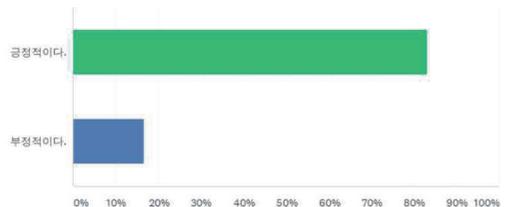
<보호자 응답>

[그림 2-3] 거주 지역(시, 군 단위)에서 교육 행사가 개최시 참석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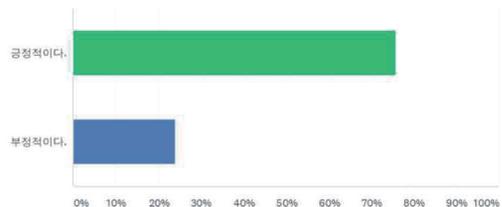
[그림 2-3]을 보면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서 교육 행사가 개최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학생과 보호자 모두 70% 이상 나타나, 해마다 창원에서 박람회가 개최되어 참석 의지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창원 중심의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시사함.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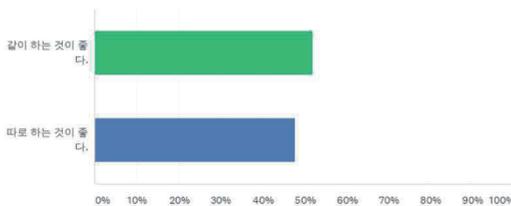
<교사 응답>

[그림 2-4] 학교급별 교육 행사의 분리 개최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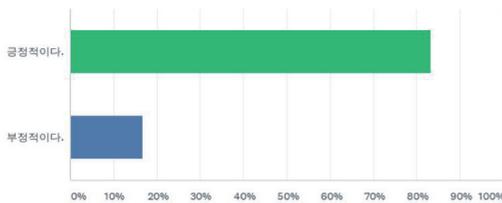
[그림 2-4]를 보면 학생의 경우, 학교급별로 따로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70%에 달하며, 보호자와 교사도 모두 70% 이상이 학교급별 분리 개최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한 설문 조사의 기타 응답란의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중 경남교육박람회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학교급을 구분 짓지 않고 진행된 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연령에 맞는 체험이 없다거나, 참가할 만한 체험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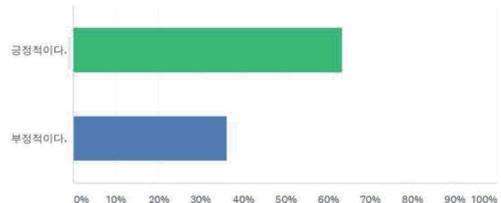
따라서 학교급별 교육 과정에 맞추어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람객이 밀집되어 깊이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점과도 연관된 것으로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교사 응답>

[그림 2-5] 대상별 교육 행사의 분리 개최에 대한 의견

[그림 2-5]를 보면 학생의 경우, 대상별 분리 개최 의견이 47.94%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보호자,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06%로 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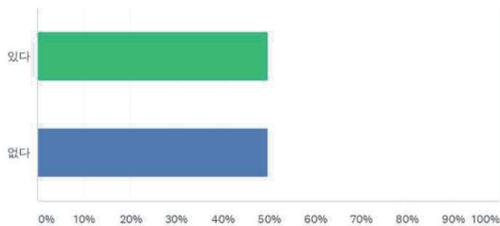
반면, 보호자와 교사의 경우 교사는 60% 이상, 보호자는 80% 이상이 대상별로 분리 개최하

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하여 학생들과 다른 의견을 보임.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별로 보호자, 교사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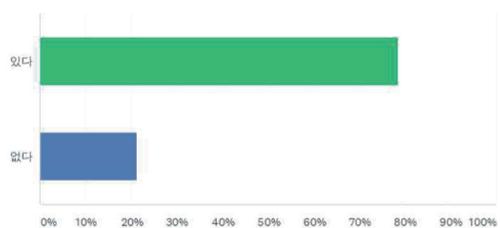
다만 학생의 경우도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5% 이하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 개최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급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에 이어지는 설문 문항은 <표2-6>의 4)에서 7)의 문항에 해당하며, 이 문항은 온라인 공간으로 장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해당함. 온라인 공간으로 장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온라인 박람회에 대한 호응도 저조하였으며, 현재 경남교육박람회도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박람회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장소만 옮기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경남 전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고 방역 부담이 없으며, 온라인을 통한 경험은 미래교육 측면에서 배제될 수 없기에 다양한 형태로 참석 의사를 묻는 문항을 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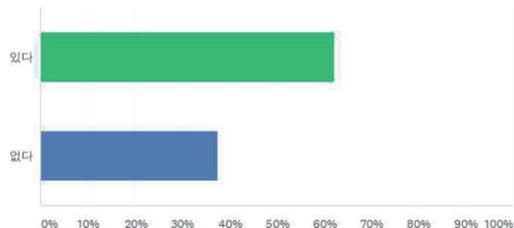
[그림2-6] ~ [그림2-8]까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제시하고 참석 의사를 물어본 결과에 해당함.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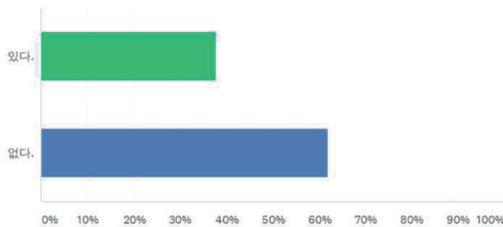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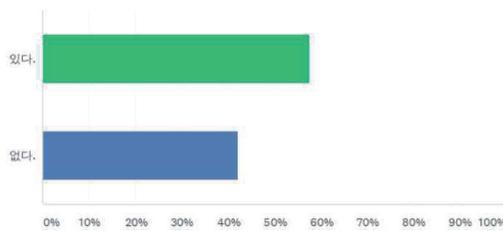
[그림 2-6]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그림 2-6]를 보면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하겠다는 응답은 보호자의 경우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생의 경우 49.96%로 가장 낮음. 특히 학생의 경우 50.04%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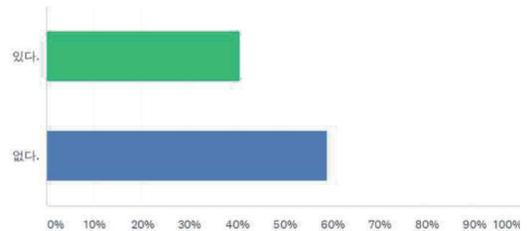
이는 온라인으로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과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피로도나 권태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대상의 교육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온라인을 통한 행사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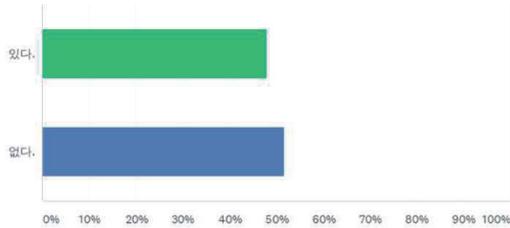
<교사 응답>

[그림 2-7]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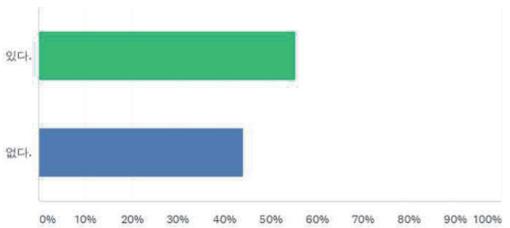
[그림 2-7]은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의 쌍방향 화상 회의 플랫폼인 유프리즘과 줌으로 진행되는 교육 행사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등 온라인 쌍방향 화상 회의를 통한 교육 행사에는 학생, 교사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진행보다 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이톡톡(유프리즘)이나 줌 화상 회의가 수업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에게 피로감을 주고 플랫폼 자체의 단점 또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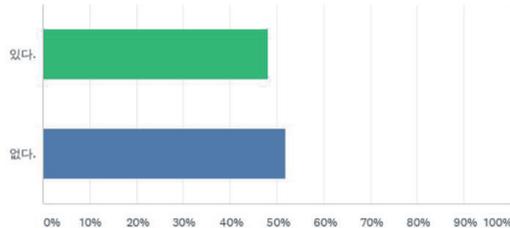
다만 보호자의 경우,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에 긍정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보호자의 경우,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교육 행사가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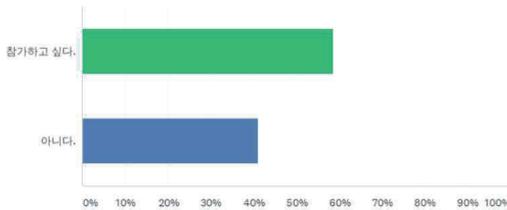
<교사 응답>

[그림 2-8]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한 교육 행사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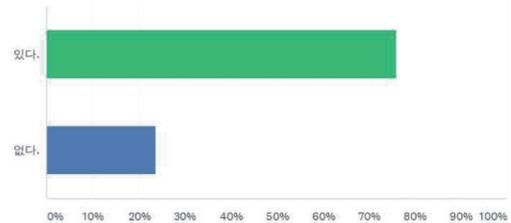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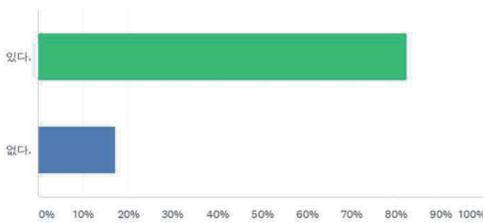
[그림 2-8]를 보면 영상 공모전 등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를 제외한 학생, 교사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경우 영상 공모전의 형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학생과 교사의 경우 영상 공모전의 형태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영상공모전을 유튜브로 중계하는 것이 쌍방향 소통 플랫폼인 아이톡톡(유프리즘)이나 줌 화상 회의보다는 선호도가 높음.

다만, 이 문항은 실제 제공될 때, 영상 제작을 하여 유튜브 등으로 중계한다면 영상 제작이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활동 등에 참여하겠냐는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되었음. 이는 학생들에게 최근 가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문항이었음.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만, 직접 교육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소통하는 것이 적극성을 크게 요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48.02%는 직접 참가함. 학생들이 영상 제작과 공유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온라인으로 장을 넓힐 경우 선호하는 플랫폼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 2)영상 공모 등을 통한 유튜브 중계, 3) 아이톡톡 (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수치상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플랫폼 별로 장단점을 살려 상세한 조사와 보완이 필요함.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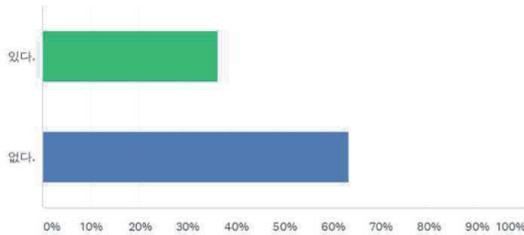
[그림 2-9] 유명 인사의 온라인 특강, 토크 콘서트 등에 대한 선호도

[그림 2-9]을 보면 유명 인사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면 참석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특히 보호자와 교사의 경우 8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학생의 경우에도 60% 가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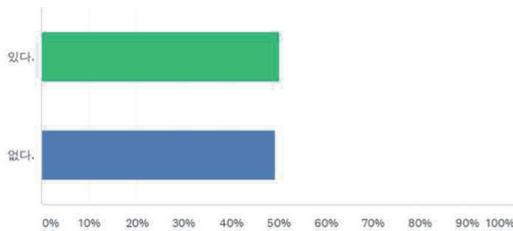
유명 인사의 경우, 수도권이 아닌 경남의 경우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면화 되고 익숙해진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활용하면 평소에 경남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수도권, 해외의 강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온라인 행사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유명 인사 특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온라인 상황이 직접적인 체험과 깊이 있는 소통은 힘들지만,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며, 특히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 받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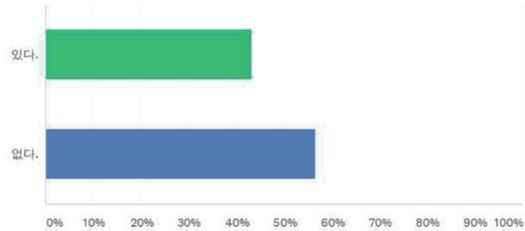
려할 때, 그 내용의 구성과 강사 선택에 유의하여 진행하면 유의미한 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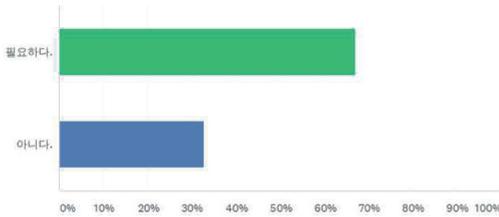
[그림 2-10] 포럼이나 세미나 등 학술 행사 선호도

[그림 2-10]을 보면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경남교육박람회에서 경남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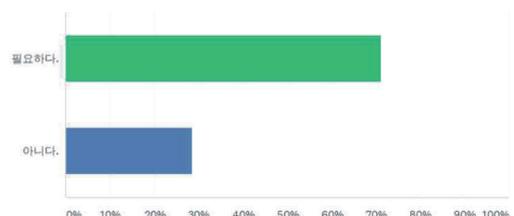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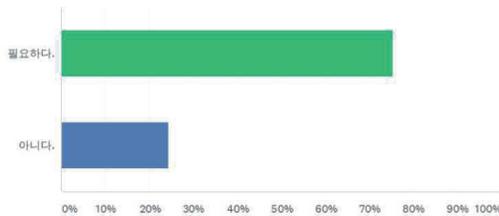
학생, 보호자, 교사 집단 전체를 놓고 볼 때, 포럼이나 세미나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 축제나 행사에 포럼이나 세미나 등의 전문적인 영역을 제외 시켜도 될 것으로 보임. 경남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등은 소수의 관련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박람회와 분리하여 깊이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단, 학생, 보호자,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포럼이나 세미나의 내용을 좀 더 대중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학생, 보호자, 교사가 경남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장에 대한 논의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은 <표2-6>의 10), 11) 문항에 관한 것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밖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문항으로 [그림 11], [그림 12]은 학생, 학부모 동아리 관련 지원 확대에 관한 문항의 결과에 해당함.



<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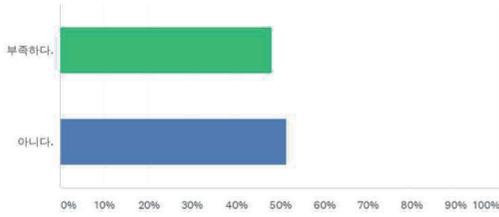
<보호자 응답>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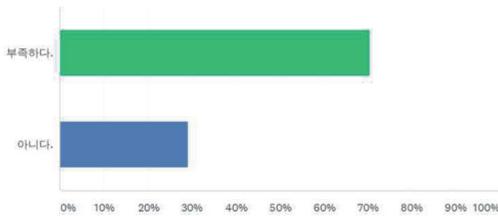
[그림 2-11] 학교 외 학생, 보호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의견

[그림 2-11]를 보면 학생, 보호자 동아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 70% 내외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제공된 문항에서는 문항에 대한 설명에 학교 밖의 ‘일상적인 교육 네트워크 지원 확대’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학교 밖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교육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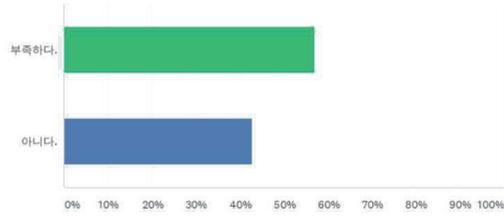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의 수업공동체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 동아리 모임, 학부모 모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육적인 소통과 공유가 일상에서 지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와 같은 모임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소통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사 집단,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 집단의 소통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학생 응답>



<보호자 응답>



<교사 응답>

[그림 2-12] 학교 외 학생, 보호자 동아리 발표회에 관한 의견

[그림 2-12]를 보면 학생, 보호자 동아리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보호자의 경우 70.78%, 교사의 경우, 57.11%에 달함. 이는 학생, 보호자 동아리 등의 사례 공유에 대해 보호자와 교사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학생의 경우 ‘동아리의 자랑이나 발표할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학생 동아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나, 동아리 발표 등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 간의 소통과 활동 지원은 선호하나 발표 등의 전시, 공유 활동에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박람회와 같은 전시의 장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일상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시사함.

이는 앞에서 전문가들이 내용의 전달보다는 역량을 중심으로, 전시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함.

이와 관련하여 체험의 형태에 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깊이와 연속성이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선호하는지, 범위가 넓고 다양한 체험을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을 추가로 제시함.

<표 2-8> 체험 형태에 관한 선호도 1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볼 수 있는 박람회 | 38.76 | 40.41 | 45.35 |
| 장소를 분산하여 깊이 있게 제공되는 전시, 공연, 체험 등 | 61.24 | 59.59 | 54.65 |
| 계 | 100 | 100 | 100 |

<표 2-9> 체험 형태에 관한 선호도 2

| 매체 | 학생(%) | 보호자(%) | 교사(%) |
|------------------------------------|-------|--------|-------|
| 경남의 모든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수 교육 사례 | 40.66 | 44.08 | 53.04 |
| 매월 1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 59.34 | 55.92 | 46.96 |
| 계 | 100 | 100 | 100 |

<표 2-8>, <표 2-9>를 보면 깊이와 연속성이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범위가 넓고 다양한 체험보다 선호하는 것이 나타남. 특히 학생들의 경우 선호도가 더 두드러짐. 단, 교사의 경우 선도 학교나 우수 교육 사례를 접하는 것에서는 다양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의 경우 장소를 분산하여 깊이 있게 제공되는 전시, 공연, 체험과 매월 1회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60% 내외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속성이 있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음.

2.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초점 집단의 인터뷰 설문 내용은 아래 <표 2-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표 2-10>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인터뷰 설문

| 설문 내용 | |
|-------|--|
| 1)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박람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활동의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 지역에 일상적인 경험을 확대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창원 중심의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는 것에 동의함.

특히 학생, 보호자가 주체가 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하며 기관이나 교사 주도의 전시나 홍보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면담자 B: 경남교육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보다는 학교 위주로 ‘찾아가는 교실’ 등의 (학생들이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면담자 C: 교사,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운영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될 수 있어야지 일방적인 홍보를 위한 박람회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경만 하게 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면담자 I: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자료가 나가고 있으며, 교육청은 출입 기자 등을 통해 성과 및 비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홍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시, 체험 영역 등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오감적 영역의 체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기존의 경남교육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박람회의 홍보 기능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교육기관이나 교사 주도의 홍보보다는, 학생, 보호자가 주체가 되고,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시, 체험 영역을 확대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일방적 홍보보다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면담자 B: 교사들 수업 공유도 한 데 공유 사례 모으고 발표하는 자리 마련에는 품도 많이 들고 고민을 나눌 수도 없어서 요즘에 단위 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미리 경남 전체에 공지하고 신청 받아서 수업 나눔 하잖아요.

면담자 E: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는 것보다는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공모할 때 활동 주제로 공모하고, 우수 사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사이트에 누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공유의 경우,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권역별로 진행하는 우수 사례 박람회보다는 수업공동체나 연구 모임, 수업 나눔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간의 수업 공유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서 우수 사례 발표회나 수업 전시회의 형태가 되면 준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단위 학교별로 하고 있는 수업을 공개하되 타 학교에도 오픈하는 형태를 추천하였음. 이와 같은 형태는 수업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전시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수업 사례가 외부로 공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면담자 A: 수업 공유의 날 지정(학교 휴업) 후 단위 학교별로 수업 우수 사례를 준비하고 사전에 공지하여, 경남 전 교직원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과 관심 있는 사례별로 찾아가서 수업을 듣고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자 C: 현재 잘 운영되는 교사 간의 교육 활동 공유가 많습니다. 수업공동체나 연구 모임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주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비율이) 더욱 확대되리라 봅니다.

면담자 D: 다양한 대외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홍보하는 것 이면에 내실 있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급 및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원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대외적인 행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 할지라도 교육의 주체에 교원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원이 행복하고 여유를 느낄때 좀 더 적극적인 도 교육청 차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면담자 H: 지금처럼 행정업무와 담임 업무에 치이는 와중에 자발적 동기 부여만 기다리기도 힘들긴 합니다. 학교별로 수업 공개를 하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 경감이나, 연수 강사비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학교별로 이익을 주거나 가산점 등의 형태가 되면 강제성을 띠게 되

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교사들에게 수업 시연을 보는 것은 강의식 연수보다 더 큰 배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원 방안을 확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수나 업무로 그마저도 참석도 하기 힘들기도 하고, 학교장이나 교감이 참석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교체하고 가거나, 담임으로서 종례 등에 자리를 비우는 출장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실정을 고려할 때, 교사들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 수업의 날 운영, 수업 공유 활동에 참가를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수업 공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것이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면담자 D: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관련하여서는) 경남에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연수로 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비대면 쌍방향 연수도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유명 교육 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연수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면담자 O: 경남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 사이트에 법정 의무교육은 한 데 묶고, 새로운 교육 트렌드나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과정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는 연수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연수원의 과정과 달리)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담은 짧은 연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수업 트렌드와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교직원 대상의 의무 교육 사이트에 상시 제공되는 짧은 연수나, 수도권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대면 쌍방향 연수 등 제시하였음. 이는 교사들이 이미 관심 있는 분야의 연수는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듣게 되지만 새로운 수업에 관한 내용은 일상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직원 의무 교육 전달 사이트나 유명 인사를 초청한 연수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임.

면담자 E: 경남교육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코로나19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지원방_교수학습지원과 같은) 사이트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자료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장 자료 누적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홍보를 통해 성장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간의 수업 공유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활성화된 실시간 온라인 발표, 토의, 협의 등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면담자 H: 좋은 집합 연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 경우에는 줌(ZOOM)을 통한 연수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연수도 좋지만, 줌

(ZOOM)은 집합 연수처럼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고 경남 실정에 맞게 운영도 되니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수업 기술에 대해) 쉽게 꾸린 가이드나 자료집도 보급되어야 합니다.

집합 연수 확대나 집합 연수를 대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온라인 연수를 확대 제공하고, 새로운 수업이나 우수 사례에 관한 가이드나 자료집으로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음. 일방적인 온라인 전달 연수보다는 쌍방향 온라인 연수의 경우 발표, 토의, 협의 등 교사 간의 소통도 가능하고 경남 실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어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경남 교사 간의 수업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아카이브할 필요성도 제시되었음. 온라인을 활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자료를 아카이브하는 것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교사 간 수업 공유 뿐만 아니라 홍보 및 학생, 보호자 참여 확대에도 활용도가 높음.

면담자 J: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온라인 확대가 좋다고 봅니다.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 등)을 기반으로 하면 경남 지역 전체에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 공유와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여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L: (박람회를 대체할 행사)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육 성과와 우수 사례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에 동영상이나 sns 인증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기존의 아이톡톡,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바로 연결되고 자료실로도 공유와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담자 S: 경남교육역사관처럼 진학, 진로, 학습 등 테마별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남교육 아카이브와 같은 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보고서(블로그, PPT, 웹툰 등)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료를 아카이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표절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여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고 정보의 공유와 아카이브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다만, 경남교육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힌 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온라인에서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극복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별, 대상별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교육청별 혹은 권역별 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기술하였듯이 ‘박람회’ 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면담자 I: (학교급별, 대상별, 지역교육청별로) 행사를 작게 나누어 개최하는 것은 학교성과발표회와 유사해질 수 있고, 학교 행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담자 S: 지역, 대상별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지역 특색을 가질 수 있긴 합니다만, 차별화되지 않은 소규모 행사의 난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인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지금과 같은 박람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X: 대상이나 학교급별로 맞추어 진행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맞추어 진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지는 수요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결국 깊이 있는 체험 제공을 원하는 것인데, 그저 소규모로 같은 행사를 여러 곳에 분산해버리는 것은 부실한 행사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만 달라질 뿐, 박람회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개최하는 경우 기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되어 깊이 있고 풍부한 체험을 제공하기 힘들. 깊이 있고 풍부한 체험을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다양한 체험관을 확충하여 양질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함.

면담자 B: 단위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실이나 수업 나눔을 개최하게 되면, 지역 소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이 공개되는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양질의 전시 체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창원에 있는 과학관이나 수학체험관 같은 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험관 등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담자 I: (도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하여) 창원에 국한하지 않고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 권역별

로 참여가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권, 진주권, 김해양산권, 거제통영권 등으로 나누어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 W: 찾아가는 박람회 버스라든가, 지역교육청을 이용하여 전시나 체험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격차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체험의 질을 높이고,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체험관의 확대가 필요하며, 경남 전 지역에서 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로 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음. 또한 단위 학교에 바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면담자 K: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단순 홍보를 위한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남교육박람회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것, 일반인으로서 쉽게 알 수 없는 교육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면담자 U: 전시나 이론 중심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교육 활동이 흥미롭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별 분산하는 것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이 되면 이후 교육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어서 바람직합니다.

면담자 T: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동이 절실합니다. 틀이 없는 교육, 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을 생각하는 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혁신 또한 강조하고 있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박람회와 같은 일방적인 홍보, 전시, 이론 중심의 전달은 지양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존의 전통적인 행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최근의 교육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행사의 내용도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함.

면담자 R: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가 이미 많습니다. 산발적 공문 등으로 제시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학교급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자 V: 단위 학교에 정보와 자료, 예산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다양한 활동의 전문 강사를 배정하여 교사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면담자 X: 간단한 정보 소개라면 박람회보다 팸플릿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교육 트렌드가 매년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무작정 어떤 트렌드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제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방법 등이 등장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람회 형태가 다양한 최신 교육 트렌드의 제공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기능이기 는 하나, 현장에서 접하기 힘든 새로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교육 현장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트렌드’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 공유 활동과 교육에 관한 학술 행사나 연수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3. 대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가. 설문 조사 및 초점 집단 인터뷰를 중심으로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는 실제 수요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폭넓게 보여주었고, 초점 집단 인터뷰에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운영, 진행 등에 관련된 교육전문가들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보여주었음.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창원 중심의 대규모 전시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창원 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남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 가기 힘들. 이는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등의 가치와도 대치되는 방향으로,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이 운영 단위가 되어 경남 전 지역의 교육공동체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공공성과 지역성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함. 다만, 단순히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별로 기존의 박람회와 같은 형태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기존 박람회 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소규모 행사가 난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단위 학교의 정상 적인 교육 과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둘째, 체험은 학교급별 대상에 맞추어 전문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함.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의 경우,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체험 부스가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체험의 질이나 교육 과정 연계성 등에서 다양한 학교급의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전시나 체험 등을 제공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전시와 체험 부스의 특성상 일회적으로 체험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흥미 위주의 맛보기식 체험보다는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키우거나 꾸준히 교류 가능한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참여자의 주체성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따라서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은 관련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일상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미래교육 혹은 진로·진학 등 새로운 정보 제공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따로 특화하여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봄.

셋째, 경남교육청의 성과 홍보의 기능의 경우 일방적인 전시와 정책 홍보의 효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일방적 홍보보다는 경남교육의 정책과 특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경남교육박람회의 경우 일회적인 홍보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임. 박람회와 같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홍보 행사보다는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특색 등이 공유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홍보 채널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홍보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경남교육에 관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설문 조사 결과,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자와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집중도를 고려할 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적인 주제 제시나 형식적 틀을 개선하여 문턱을 낮추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는 온라인과 병행하며 이루어져 왔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행사를 온라인에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조회수가 저조한 편임. 또한 경남교육박람회의 경남교육 홍보 기능의 경우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호응이 아직 저조한 편임.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 활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제될 수 없는 부분으로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되면서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피로도도 누적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내용 전달과 홍보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함.

다섯째, 교육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교육 트렌드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내용이 진부하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계속해서 지적됨. 학생 및 보호자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경우,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와 미래 교육 등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 받길 원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일방적인 홍보, 전시, 이론 중심의 전달 내용과 구색을 갖춘 형식적인 내용들을 걷어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를 위주로 쉽게 접하기 힘든 미래교육 등에 관한 전문적 정보를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여섯째,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접할 수 있었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준비 부담이나 참가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교사들의 경우 기존의 수업 나눔 활동이나 수업 나눔 축제, 수업 연구 공동체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봄. 새로운 수업 박람회나 발표 대회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박람회의 한계로 지적된 사항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가중시켜 일상 교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례 발표라는 특성상 실질적으로 수업 공유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함. 아울러 수업 공유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시수, 학급당 인원수 등을 적정화하여 교사들이 수업 연구나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박람회와 같은 도 교육청 중심의 전시 행사 형태를 해체하고 지역과 참여자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일상 교육과 소통 중심의 교육 공유 활동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교육에 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용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은 교육계에도 유효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되며 교육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음. 온라인 공간의 활용은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될 현상으로 보아야 함.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려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2020년 4월 NIES 시스템을 통하여 22만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의 결과, 많은 교원들은 ‘향후에도 원격수업을 수업에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음.(장혜승, 2020) 이러한 조사 결과는 원격 수업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의 도입이 가속화된 것일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이나 확보, 저작권 문제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학생 관리, 학습 관리를 하게 된 학부모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장혜승, 2020) 또한 현행의 온라인 학습은 학습효과 저조(25.8%)로 불만족한다는(56.3%) 응답이 높고, 효과적인 원격 학습을 위해서는 에듀테크(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게임 등) 도입(22.8%)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배영임 외, 2020)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라는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활동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경남교육청은 2021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4대 가치 가운데 하나를 ‘미래성’으로 꼽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미래성’이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미래성을 담지한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명시되고 있음.

미래성의 추구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1) 미래사회를 대비해 보편적 가치와 핵심 역량을 겸비한 올바른 민주 시민 양성, 2) 협력성과 동료성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는 배움 중심 교육의 실천, 3)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함으로써 학습자 주도 교육과정 설계로 경남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

요한 핵심 역량을 가진 개인을 추구하면서도, 협력성과 동료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을 알려줌.

경남교육청은 2021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2021년 추구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설정하고 있는데, 1순위 정책으로 '미래 역량 중심의 수업 혁신'을 꼽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를 살펴보면, 단위 학교 중심, 학생 역량 강화 중심,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0년 3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에서는 '경남교육미래체제' 구현을 위하여, 현행 학교시스템에서의 공간 혁신과 지능 정보기반의 플랫폼을 반영한 경남형 미래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역량 기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행복학교와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경남형 미래 학교 모델을 제시하였음.

경상남도교육청(2021)에서 경남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 지역성으로 민주성은 자발적인 참여, 소통과 공감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을 의미하며, 공공성은 모든 학생에 차별 없이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미래성은 교육의 내용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지역성은 지역 사회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교육을 의미함. 이와 같은 경남교육의 가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세 가지 역점 과제에도 드러나고 있음.

경상남도교육청의 2021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3대 역점과제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 공동체 구축'을 꼽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순위 우선 정책을 '미래 역량 중심의 수업 혁신'을 내세우며 경남교육이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경남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미래 교육이란 '아이들이 생애에 걸쳐 배움을 즐기고 적극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주도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혁신과 역량 강화 중심의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13] 경남 교육 철학(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요구 및 경남교육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은 개별 학생 중심, 역량 강화 중심, 단위 학교 및 마을(지역 사회) 중심의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비해 경남교육박람회의 한계로 분석된 내용들은 경남교육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주요 역점 과제에서 보여주는 방향성과도 분명히 대치됨.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며 소통이 배제된 일방적인 전시 행사로서 창원 중심으로 개최되어 소외 지역이 발생하였으며, 역량 강화보다는 성과 전달 중심의 전시와 발표나 흥미 위주의 체험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형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일상 교육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점 등은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토대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기능을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교육 흐름에 맞추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분산시켜 대체 및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1)다양한 경험 제공, 2)경남교육의 홍보, 3)교육 과정 지원, 4)새로운 교육 정보 제공의 크게 네 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산하여 그 대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그림 2-14] 주요 기능의 분산 및 대체 방향

경남교육박람회 의 대안 모색의 주요 방향을 경남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 기능은 일회성의 흥미 위주 체험과 창원 중심의 혜택 제공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함. 장기적으로 지역별로 불균형한 체험관 등의 건립을 확대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체험처를 제공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함. 또한 체험처별로 전문화하여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학생의 일상 가까이에서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회성 체험을 역량 중심의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

둘째, 경남교육 홍보 기능은 경남교육청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경남교육의 성과 및 정책, 특색 등을 수요자가 참여하여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의 일반적인 홍보의 방향 또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 중심으로 소통과 공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교육청이 교육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홍보 활동의 전략을 그대로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경남교육박람회 의 홍보 활동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인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공유의 관점에서의 홍보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교육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음.

셋째, 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던 기능의 경우, 기존의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연구 모임을 지원하면서 교사들이 일상 수업과 수업 공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교사들의 경우, 수업 공유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연구 모임 등의 공동체와 수업 축제 형태의 행사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남교육박람회 와 같은 전시와 발표 형태가 준비 및 참가의 부담으로 이어져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넷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것은 경남교육박람회 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였으나, 체험 위주로 부스 운영이 확대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음. 경남교육박람회 가 다

양한 체험 부스 운영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교육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새로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육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일은 중요한 기능이며, 특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새로운 교육 정보를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최신의 교육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과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 전시 행사인 경남교육박람회를 해체 및 분산하여 참여자의 주체성과 지역성을 살리며 미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여야 함. 이를 위해 경남교육박람회의 틀을 해체하고 유사한 대규모 전시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의 기능은 분산하여 대체될 수 있으며, 각 기능을 분산하여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추어 개별화하여 질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경험 제공, 경남교육 홍보, 교육 과정 지원의 세 가지 기능을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들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각 대안의 내용과 접근 방식으로서 개인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1)학생의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가까운 체험처의 확대, 2)학교 및 마을 중심의 작은 축제의 확대, 3)교육공동체의 일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제3장 대안의 모색

제1절 | 가깝고 일상적인 체험처의 확대

1. 필요성

경남교육박람회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였으나, 창원 지역 외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참가자들의 밀집도가 집중하기 힘든 환경과 다양한 대상의 눈높이 맞춘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음. 경남교육박람회는 형식적인 특성상 체험이 일회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고 간단하게 흥미 위주나 정보 전달로 진행되는 체험 부스가 주를 이루며 체험의 질과 교육 과정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생과 보호자들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경남교육박람회가 체험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나, 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성과로 보고 있었으며 다양한 체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또한 교육이 교과 학습을 토대로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에 해당함.

앞서 보았듯이, 경남 도 내의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 전반적으로 학생을 위한 체험, 전시, 공연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보호자의 경우 상위 학교급일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전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이상에 달함. 학생과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학생과 보호자 모두 거주 지역에서 교육 행사가 열린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남. 거주 지역 가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처에 관한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등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의 신설, 체험처 분원 운영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확대 과정에서 소외 지역을 고려하여 체험

<표 3-1> 체험 시설의 권역별 분포

| 권역별 | 체험 시설 | 시설 개수 |
|----------------|--|-------|
| 거제 고성 통영 창원 함안 | 경남수학문화관, 거제 수학체험센터, 마산 지혜의 바다, 창원과학체험관, 경남유아교육원, 경남진로교육센터,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 8 |
| 남해 사천 진주 하동 | 과학교육원, 예술교육원 해봄(악기도서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진주수학체험센터,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5 |
| 거창 산청 함양 합천 | 거창수학체험센터,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 2 |
|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 김해 지혜의바다, 김해수학체험센터, 양산수학체험센터, 밀양수학체험센터,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경남특수교육원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 양산진로교육지원센터 | 9 |

<표 3-1>은 4대 권역을 나누어 보았을 때, 체험 시설의 분포에 지역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 줌. 특히 거창, 산청, 함양, 합천 지역의 체험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권역을 더 세분화하여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거제, 통영, 고성을 하나의 권역으로 따로 살펴 본다면 사실상 해당 권역에는 거제수학체험센터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 체험 시설의 분야별 분포

| 분야 | 체험 시설 | 시설 개수 |
|---------|---|-------|
| 수학 · 과학 | 경남수학문화관,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 거창수학체험센터, 김해수학체험센터, 양산수학체험센터, 밀양수학체험센터, 거제 수학체험센터, 창원과학체험관, 과학교육원, 진주수학체험센터 | 10 |
| 문화 · 예술 | 김해 지혜의바다, 마산 지혜의 바다, 예술교육원 해봄,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 4 |
| 진로 · 진학 | 경남진로교육센터,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 양산진로교육지원센터 | 5 |
| 체육 · 안전 | 학생안전체험교육원 | 1 |

<표 3-2>는 분야별로 볼 때는 수학 · 과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특히 <표 3-1>과 함께 살펴보면 수학체험관의 경우, 모든 권역으로 체험센터가 확대가 된 것을 알 수 있음. 문화·예술 분야나 진로·진학 분야의 시설 또한 수학체험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분원을 확대 하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분야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체육·안전 분야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데, 이는 수련원 등의 시설에서 안전 체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수련원 등의 시설은 학생들이 개인, 가족 단위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 다양한 체육 활동과 안전 체험의 중요성이 증대된만큼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체험처의 확대가 필요해 보임.

체험처의 분야는 위에 언급한 이외에도 외국어, 민주 시민 교육 등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 다양화할 수 있으며, 교과 이외에도 영화·연극, 해외 문화, 요리,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 각종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학생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의 차이는 학교 교과 과정의 이해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학생들의 체험의 폭을 넓혀주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이 제공하는 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체험의 폭과 문화 격차는 가정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공교육에서부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학교에서도 지역의 체험처가 확대되면, 교과 활동이나 체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최근 단위 학교에서는 각종 체험 학습,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담당 교사들의 고충이 있음. 지역별 체험처의 확대는 학교 단위의 체험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 효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2. 주요 방안과 사례

권역별로 나누어 체험 시설을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체험처가 부족한 지역에 체험 시설을 보완하고 전 지역의 접근성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체험 시설은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학생 대상의 전시나 공연 장소 대관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수학체험시설의 경우, 창원외의 경남수학문화관을 중심으로 거제, 거창, 김해, 밀양, 진주, 양산 등으로 확충하여 비교적 읍·면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권역별로 골고루 확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분야의 체험 시설의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다양한 지역에 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성을 살릴 수 있음. 해당 지역만의 특성과 인프라를 이용한 체험 시설의 확대는 해당 지역민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도민에게도 다

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지역적 특성과 인프라를 살려 지역성이 두드러지면서도 경남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가족 대상의 체험도 가능하도록 구상한 사례로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이 있음. 이 경우는 새로운 체험관의 설립이 경제적이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우, 폐교나 운영이 어려운 수련원 등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체험 시설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2]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의 외관과 체험 시설

가야산 도서관 정글북은 합천 옛 송산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개관한 독서 체험 기관으로 독서, 공연, 전시, 놀이, 캠핑 등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독서 프로그램과 현장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또한 해당 지역 학생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단위 학교에 체험을 제공함. 이외에도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살려 방갈로와 캠핑 데크 등을 제공하며 경남 도 내 전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용 공간이 되고 있음. 이와 함께 운영되는 주말가족북캠프에서는 작은 음악회, 샌드 아트, 마술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존 체험 시설이 수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그 외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른 분야의 문화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학생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와 같은 다양성의 확보는 교과별 다양성은 물론, 교과 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경험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함. 외국어, 문화, 예술, 체육, 안전, 직업 등 학생의 삶 전반에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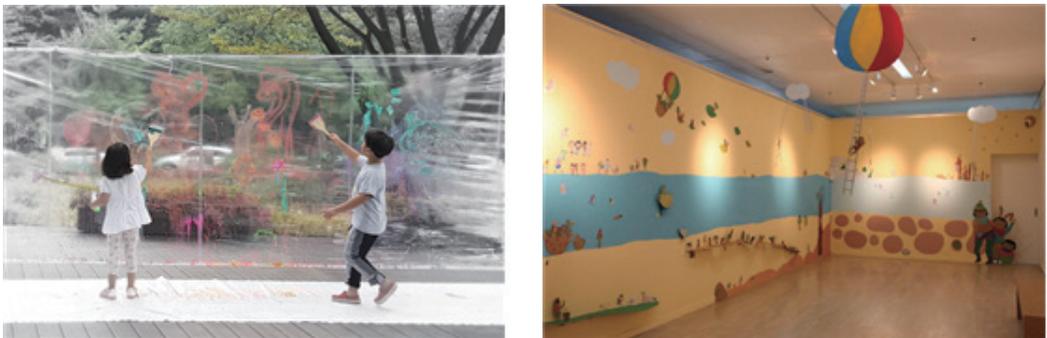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술교육 전문 체험관으로서 설립한 예술교육원 해봄은 2018년 개관하여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전시, 공연 등 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현재 경남 도 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의 유일한 전문 체험 시설임.



[그림 3-3] 예술교육원 해봄의 외관과 전시실

현재 예술교육원 해봄(진주)에서는 음악 콘서트, 발레 공연, 마술 공연, 시인 초청 특강 등 예술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권역별로 이와 같은 예술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예술 체험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예술회관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학생 대상의 예술 체험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민의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



[그림 3-4] 국립과천어린이미술관과 부산시립어린이미술관의 모습

현재 어린이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과천 국립어린이미술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경남 근교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 내 어린이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음.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은 학생과 가족 단위의 대상에 맞춘 전시와 다양한 미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임.

외국어 분야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높아 공교육의 차원에서 체험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등의 운영 방식을 참고할 만함.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는 광주시에서 (주)헤럴드에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외국어 체험 센터를 제공함. 경남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한다면 체험의 다양한 제공과 함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음.



[그림 3-5]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체육 및 안전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은 경남 도 내에 안전교육체험관이 유일함. 경남 도 내에도 다양한 수련원과 진주학생수영장 등이 존재하지만, 학생이나 가족 단위로 직접 신청하여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체험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함. 학생 대상의 체육 교육과 안전 교육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에 비해 아직 단위 학교의 시설로는 생존 수영 등의 체육 및 안전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체육 및 안전 체험 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그림 3-6]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외관과 체육 체험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팔공산 수련원에서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가족,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1일체육체험 프로그램은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받아 운영하지만, 토요일체육체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잉머신, K-POP댄스, 골프 등 다양

한 체육 체험을 할 수 있음. 이외에도 숙박형 연수 시설, 안전 교육 체험, 대구교육가족캠핑장 등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3-7]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안전 체험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체험 위주의 수상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을 개관하여 실생활의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체험과 체험 위주의 수상 안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보트 전복 긴급 대피 체험, 수상 인명 구조 활동, 생존 수영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 교육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이외에도 항공 안전, 지진 대피, 화재 대피 체험 등이 제공됨.

이외에도 대상별로도 범위를 넓혀 다양한 체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야외 체험 공간인 ‘너나들이공원’은 2021년 개장하였는데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례에 해당함. 야외 체험 활동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상별로 범위를 넓혀 체험 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에 해당하며 다양한 교육 대상자에 대해 맞춤 시설을 제공한 사례에 해당함.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 시설의 경우 창원, 진주, 김해까지 확대되어 있음. 창원의 경남유아교육원을 중심으로, 진주 분원의 경우 과학체험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김해 체험 분원의 경우 자연생태체험활동을 중점으로 함. 이와 같이 대상별 체험 시설을 확대하면서도분야별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체험의 대상과 분야 모두 다양성을 확보한 바람직한 사례에 해당함.

분야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교과 관련 분야로만 범위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삶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2021년 경상남도교육청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 내에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직업계고 바로 알기 일환으로 직업체험관(1개교에 약 55,000원 지원)을 운영할 예정임. 이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 체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적 운영보다는 상설화되도록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체험처의 확대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질도 높아져야 함. 경남교육박람회의 경우에도 다수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깊이 있고 풍부한 체험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음. 양질의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과 지역 문화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은 전문적이며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음.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모든 학생이 양질의 문화 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양질의 문화 체험은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이나 전시와는 전혀 다른 측면의 경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관의 확대가 필요함.

면담자 B: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벗어나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열망이 커요. 학교가 아닌 기관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체험, 전시를 경험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정 형편에 따라 전시나 체험관에 한 번도 안 가본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격차를 공교육이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를 다녀와서)시시하거나 지루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가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학교 공간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만든 전시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건 학교에서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미술관 같은 공간에서 보는 좋은 전시나 학생 대상의 공연 같은 것도 확대해서 질 높은 체험을 제공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체험 시설의 확대는 학생과 가족 단위의 다양한 일상적인 체험을 돕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며, 지역 특색을 살리고 지역 문화와도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단위 학교에서도 각 지역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보되면 진로 체험, 자유학기제 운영 등 체험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적으로도 유리함.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질 높고 풍성한 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것임.

제2절 | 학교와 마을의 작은 행사

1. 필요성

경남교육박람회는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창원 지역에서 개최된 대규모 전시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경남교육박람회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의 개별 구성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사’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일상 속의 ‘작은 행사’에 주목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작은 행사’는 전시성 행사나 성과 발표회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공유와 소통에 중점을 둔 장을 뜻함.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원화·개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각 학생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의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 또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이 개인의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도 도 교육청의 대규모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 중심의 작은 축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학교에는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공연과 체험 마당 중심의 ‘학교 축제’의 형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의 일환으로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것이 학교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성과 발표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학교 단위의 작은 행사의 형태가 박람회나 학예발표회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이 경험 자체보다 우선시 되기 쉽고 기존의 학교의 학예회나 축제와 중복될 수 있음. 이런 경우, 경남교육박람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함.

이 연구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작은 행사는 교육 과정의 운영과 일상의 커뮤니티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마을 주민에게 주체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일상과의 지속성,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등이 매우 중요함. 규모가 축소된 성과 발표회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교내 밴드 동아리의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점심 시간 음악회로 함께 즐기거나, 동물 보호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동물 보호 굿즈 판매 행사 등의 작은 행사를 주목할 수 있음. 이처럼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기반을 두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중심이 된 민주적인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작은 행사는 완성된 형태의 성과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나 내용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님. 완성도와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 생활과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고 소통하는 행사며, 그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주체적인 참여의 경험은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학생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회적인 발표나 전시보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으로 교류 가능한 동아리 지원의 확대를 희망하는 등 깊이 있는 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 또한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지속성을 가지는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줌.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깊이 있고 지속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나, 프로그램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미래 교육이 정보나 내용 제공이 아니라, 역량 강화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보호자의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 모임, 교사-학생-보호자 동아리 등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사회 활동과 평생교육 등 다양한 경험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음.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회 전체의 생애 학습과 평생교육 체제의 강화와도 관련이 깊음. 지역성의 강화는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 외의 다양한 주민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공하며 학교와 마을이 쌍방향의 소통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음.

또한 학교와 마을 기반의 작은 행사는 보호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과의 공유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을 가능하게 함.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마을과 함께 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남교육의 지역성의 가치 실현과 부합하는 정책 방향에 해당함. 지역성을 살리는 것은 학교 공간과 기존의 교육 제도의 틀을 넘어 마을과 지역 사회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과 교육이 펼쳐지도록 도울 수 있으며, 지역과의 상생 및 학교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 등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작은 행사의 형태는 사실상 기존의 단위 학교와 지역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원 등이 활발하지 못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규모가 축소된 행사 가운데, 일상성과 역량 강화 등의 관점에서 대안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필요한 환경적 지원 등을 논의하고자 함. 또한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축제와 동

아리 기반의 축제 등을 소개하여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작은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방안과 사례

최근 단위 학교에서 학급, 학년, 동아리 단위로 하는 작은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전 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축제에 비해서도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작은 행사가 개별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3-8] 대구관문초등학교와 제주아라중학교의 교내 버스킹

이와 같은 교내 버스킹의 경우,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학생을 대상이 중심이 되어 진행할 수 있고 관람 학생들에게도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준비 과정이 없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함. 굳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내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지 않고, 개방된 공간에 교내 버스킹 공간 마련과 사용 규칙 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도울 수 있음.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 혁신을 통하여 학교 내 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공연이나 전시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쉼터나 전시관, 소극장이나 버스킹 무대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함.



[그림 3-9] 남해초등학교 학교 안 마을배움터 ‘별별극장’

남해초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을 학교 안 마을배움터 ‘별별극장’으로 조성하여 소강당의 강점을 살리고,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한 혁신 사례에 해당함. 남해초등학교 연극부와 지역 문화 예술인인 지역 극단이 연계된 사례로 경남교육이 추진해 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일환이기도 함.

학교 내 빈 공간이나 재구조화할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

학교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이희진, 2020)에 따르면 현대 학교 공간의 추세는 식사, 공연 또는 집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형 홀, 대형 로비 등의 공동 구역을 강화하여 소통과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하도록 구성하고 있음. 학생들의 동선 내에 통합되어 있는 내부 복도나 외부의 통로로 마치 학교가 대학 캠퍼스처럼 조성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되기도 함.



[그림 3-10] 마산의신여자중학교와 밀양밀주초등학교의 공간 혁신 사례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함께 2020년 도내 12개교에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도 1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사업’은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 학교와 지역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사회 문화형성과 삶의 공간으로 학교 역할을 확대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운동장과 중앙현관, 별도 야외 공간 등을 활용하여 야외 휴식 놀이공간, 복합문화공간, 체육활동 공간 등으로 재구조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교 공간의 혁신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공간의 혁신은 일상적인 전시, 공연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 공유와 소통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 마련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될 수 있으며, 안전이나 지도를 위해 통제되고 제한되는 구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됨.

학교의 작은 행사가 가능한 환경이 정비되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때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위의 커뮤니티로 대표적인 것이 학생 자율 동아리에 해당함. 실제로 다양한 학생 동아리가 기존 학교 축제의 부스 운영, 공연 등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주체이며, 학교 안팎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1] 창원안남중학교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그림 3-11]은 동아리 발표회를 학교의 작은 행사로 정기화한 형태도 참고할 수 있음. 안남중학교는 학교 앞마당에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였음. 이와 같은 정기 연주회는 오케스트라 소속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함.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연주회를 방과후에 진행하되,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관심 있는 학생과 학생 가족 및 교직원, 다양한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였음. 이처럼 학교의 작은 행사는 마을 주민에게 학교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함.



[그림 3-12] 마산무학여고 동아리에서 제작한 위안부 배지와 캠페인 활동

마산 무학여고 자율동아리 ‘리멤버’는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비롯하여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고, 이에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리멤버 배지의 수익금은 피해 관련 자료 유네스코 등재, 추모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음.

동아리의 지원은 이와 같이 다양한 교과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주제로 폭을 넓혀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학교에서 교사 위주로 진행되는 교내 동아리의 경우 다양한 관심 분야를 포괄하기 어렵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 학생들의 관심사에 부합하여 자발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동아리를 기반으로 해야 주체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학생 자율 동아리는 학교 소속만이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학생 연합 동아리의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음. 학교 소속으로 한정하다보면 담당 지도 교사가 부재하거나, 학교 내 구성원 조직의 어려움, 예산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활동을 펼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학생들이 학교 공간이나 학교 공동체와의 소통만이 아닌, 학교 밖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의 활동과 소통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학생, 보호자,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동아리의 활성화도 필요함. 현재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교사 동아리, 학부모회, 학부모 독서 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커뮤니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육적 활동과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면담자 F: 지역별 학교 혹은 마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 P: 학생이나 학부모가 여유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하고 인력 풀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인 커뮤니티의 조직·지원은 행정적 어려움이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그동안 학부모 모임 등이 활성화 되지 못한 배경에도 학교 단위에서 학급당 1명 배정하여 조직하는 등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마을을 기반으로 한 보호자와 지역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는 학교 단위를 넘어서 조직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또한 현재 지역 사회에는 마을 학교, 부모 모임, 시민 사회 모임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으므로 이들이 교육계와 소통하고 유의미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 본 마산 무학여고의 사례는 이런 관점에서도 검토될 수 있음. 해당 사례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자율 동아리가 시민 사회와 연계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례는 학생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와 같은 방식의 운영에 주목하여 학생 자율 동아리를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와 학생 자율 동아리를 기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참여자가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기관이나 학교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험의 다양성, 개인의 역량 강화, 구성원 간의 소통, 성과의 공유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면담자 D: 동아리 지도를 할 때 외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힙합 동아리였는데 학교에서 정식으로 개설이 안 되었거든요. 학생들은 그 지원금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연습 기계도 구입하고 의상도 마련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다만 지도 교사 입장에서 지원금의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밖의 학생 간 연합 동아리도 지원을 확대해줘야한다고 봅니다.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서요.

현재 동아리 활동 지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여러 학교가 함께 하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음.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고 동아리 간의 소통의 확대를 위한 동아리 축제 형태도 참고할 수 있음.



[그림 3-13] 2018 경남 창원 틴틴페스티벌

2018 경남 창원 틴틴페스티벌은 학교 동아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 자율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한 점이 주목할 만함. 모집 대상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않아, 학생 자율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여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참여 학생들에게 타 지역의 동아리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학교 단위를 넘어서서, 학생 자율 동아리를 기반으로 성과 발표회가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체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면 해당 지역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타 지역 동아리나 관람객의 참여와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음.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별로 많은 동아리의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해야 하는 동아리 박람회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경우, 형식적인 참여나 준비 부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반드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의 학생 자율 동아리들의 자발적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 함. 다양한 홍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율 동아리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

려운 경우, 해당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소수의 학생 동아리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외 교사, 보호자, 일반 주민 등과 함께 하도록 연계하여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음.



[그림 3-14] 2018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포스터와 2019년 행사 홍보 자료(대구광역시교육청 제공)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은 권역별 동아리 축제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축제를 동아리 한마당 개최 기간에 묶어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과 시간대로 구성하여 참가자가 원하는 분야에 골라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한 사례에 해당함.

<표 3-3> 제19회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전체 일정

| 주관청 | 일자 | 공연장 | 1부 (09:30~10:40) | 2부 (11:00~12:10) | 특별공연 (12:40~13:10) | 3부 (13:30~15:00) |
|------|-------------------------|-------|------------------------------|---------------------|-----------------------|---------------------|
| 시교육청 | 10.15.(화) | 대공연장 | 공연 | 개막식 | 휴식 | 공연 |
| 서부 | 10.15.(화) ~10.16.(수) | 대공연장 | 공연 | | 휴식 | 공연 |
| | | 야외공연장 | // | 공연 | 특별공연1,2 | // |
| | | 소극장 | 2019 서부 어울림글로벌페스티벌 (10.15.화) | | | |
| 남부 | 10.17.(목) ~10.18.(금) | 대공연장 | 공연 | 공연 | 휴식 | 공연 |
| | | 야외공연장 | // | // | 특별공연3,4 | // |
| | | 소극장 | 제4회 남부학생 낭독극 경연대회 | | | |
| 달성 | 10.21.(월) ~10.22.(화) | 대공연장 | 제20회 달성국악경연대회 | | | |
| | | 야외공연장 | 공연 | 특별공연5.6 | 특별공연7.8 | 특별공연9.10 |
| 동부 | 10.23.(수) ~10.25.(금) | 대공연장 | 공연 | 공연 | 휴식 | 공연 |
| | | 야외공연장 | // | // | 특별공연 11,12,13 | // |

| 주관청 | 일자 | 공연장 | 1부 (09:30~10:40) | 2부 (11:00~12:10) | 특별공연 (12:40~13:10) | 3부 (13:30~15:00) |
|-------|--------------------------------|-------|--------------------------------------|---------------------|-----------------------|---------------------|
| 시교육청 | 10.15.(화) ~10.25.(금) | e-갤러리 | 제39회 대구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전 일정) | | | |
| | | 대공연장 | 제39회 대구관악제 (10.18.금, 13:30~) | | | |
| | | 소극장 | 제6회 대구학생연극축제 (10.21.월 ~ 25.금) | | | |
| | | | 15:00~ 인문학 독서나눔 한마당 (10.16.수 ~ 18.금) | | | |
| | | 실내체육관 | 2019 대구 학생저자 책축제 (10.15.화 ~ 18.금) | | | |
| | | 실내체육관 | 제7회 창의체험동아리축제 (10.21.월 ~ 25.금) | | | |
| 교육연수원 | 제7회 대구학생뮤지컬축제 (10.15.화 ~ 25.금) | | | | | |

<표 3-3>을 참고하면,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은 권역별 동아리 공연과 글로벌, 국악, 낭독극, 미술 전시회, 연극 축제, 인문학 독서, 학생 저자 책, 뮤지컬 연극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업무 주관을 달리하여 경남교육박람회의 형태에 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임.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전시를 담당자와 공간을 나누어 전문성을 높이고 집중도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경남교육박람회가 모든 분야의 행사를 한 공간에 모아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 방식으로 참고할 만함.

동아리 공연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누어 참여하도록 하였고, 권역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타 지역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한 점은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장소가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대구교육연수원 등으로 한정되어, 권역별로 다른 장소에서 운영이 되지는 않아 경남의 경우에는 참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광역시보다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남 지역에서는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동아리 축제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창원 틴틴페스티벌의 경우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아리 축제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사와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동아리의 활동 과정과 공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율 동아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와 환경 지원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동아리의 전시에 치중하여 부스의 나열 형태가 되거나, 동아리의 성과 발표에 치중하여 성과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제3절 | 교실을 넘어, 소통과 공유

1. 필요성

경남교육박람회는 다양한 수업 혁신 사례와 선도 학교 사례를 교실 밖에서 공유하고, 교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우수 사례의 발표’, ‘선도 학교 성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의 형태로 인해, 우수 사례나 성과의 나열 뒤에 숨은 교육적 성찰이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으며, 사례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부담이 되었으며 창원 개최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평일에 하는 행사에는 정작 교사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수업 사례 공유와 선도 학교 성과 홍보를 발표 및 전시하는 것은 교실 현장의 유의미한 사례들을 교실 밖으로 공유하는 데에 의미가 있음. 다만 교실 수업이라는 특성상, 성과의 나열로 보여줄 수 없는 교육적 성찰이나 고민을 담아, 교육 현장의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야 함. 또한 교사들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교실 수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교사 간의 수업 공유의 경우, 비교적 활발하게 수업 공유 활동이 존재함. 교사 간의 수업 공유 활동은 수업 공동체, 연구 모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교사 수업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은 의무화 된 형태의 수업 공유 활동의 경우 학교 환경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실질적인 수업 공유 활동이 교실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공유와 소통이 활발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간의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수업 축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 공유에 관한 행사는 교육청 주관의 초·중등 수업 나눔 축제, 교원 단체나 수업 관련 교사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박람회를 대체할 새로운 수업 축제 형태의 행사를 새로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활동을 보완·개선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다만, 경남 도 내의 전 지역 간의 수업 공유와 소통, 기존 교사 공동체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접근, 학교 수업 사례를 학교 외부로 공개하여 교사 외 보호자 및 일반 도민의 이해를 돕고 소통할 필요성 등에 있어서는 대안이 필요함.

학교 외 구성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남교육박람회가 가졌던 일회성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인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온라인 공간은 공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박람회의 기능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의 전면화와 4차 산업 혁명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움과 공유 활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이 온라인 활용에 익숙한 편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할 예정임. 따라서 교육 활동의 공유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험, 전시, 공연 등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함.

또한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온라인 공간에 체계적으로 누적되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소통을 중심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온라인의 특성상 자료를 쉽게 아카이브하고 자료의 수정 및 재편집, 피드백 등이 가능하므로 참여자 중심의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활동을 지원한다면, 경남 전 지역의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봄. 특히 학교 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교의 상황과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접하도록 하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홍보와 전시를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참여자 중심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

온라인 공간의 접근성과 익명성 등은 더욱 다양한 지역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정서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소통과 공유의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음. 따라서 온라인 행사의 참여율이 낮고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가 계속해서 필요함. 또한 온라인을 통한 교육 활동이 오감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는 하나, 오감을 활용한 체험의 경우 앞서 기술한 체험관의 확대와 학교 중심의 체험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감각적인 체험의 영역까지 3D 체험이나 메타버스 등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사들의 수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 공유를 지원할 방안을 검

토하고, 교실을 넘어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간을 통한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방안과 사례

가. 교사 간의 수업 공유의 활성화

경남교육청은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수업 탐구 교사 공동체 등을 학교형, 학년형, 교과형, 동아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수업 나눔과 교사로서의 자기 성찰을 돕고 공동 탐구 및 연구로 수업 변화를 이끄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배움중심수업의 실천을 위해 배움중심수업 나눔중심학교와 수업 나눔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음. 배움중심수업 나눔중심학교(중 9교, 고 11교)는 학교 자체에서 월 1회 이상 희망 교사 대상으로 수업 나눔을 운영하며 학기별 1회 이상 교육지원청 관내 중등교원 대상으로 수업 나눔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20년 기준 개인 202명, 공동 101팀의 450명이 참여한 상시 수업 나눔 교사제를 운영하였음.

면담자 H: 지금도 수업 공개를 오픈해서 다른 학교에 신청도 받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면담자 D: 현재 교사 간의 교육 활동 공유는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학공도 있고 교사 연구 모임도 많습니다. 지원만 확대하고 교사들의 업무가 적정화 되면 자연스럽게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구성된 교사들의 수업 공동체가 원격 수업의 콘텐츠 제작,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교육과정 문해력 연수, 학생 맞춤형 교재 제작, 원격 수업 연수, 학습자 자기주도적 수업 능력 신장 연구, 학생 참여형 원격 수업, 과정중심평가에 따른 수업 콘텐츠 개발, 방역과 학생 지도 등을 연구하여 나눔으로써 교사들이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은 자발적인 교사 간의 수업 공유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외에도 교사들은 교과별 연구 모임, 교원 단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사 모임을 통해 수업 연구와 교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에 관한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수업 탐구 공동체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려면 교사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기존의 교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사들이 개인 혹은 소모임, 단체 등 다양한 단위로 수업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들 간의 자발적인 공유와 소통을 촉진해야 함.

수업 공유의 특성상, 수업에 관한 고민과 철학 등도 함께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교사의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다양한 학습 공동체를 학교 안팎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가 자신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수업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수업 공유와 더불어, 다양한 수업 공동체 간의 활동이 외부로 공유되는 것도 중요함. 수업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수업 연구의 결과 등을 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수업 혁신 사례를 접하도록 도울 수 있음. 이를 위해 수업공동체 운영 결과를 자료집으로 배부하거나,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에 자료를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경남교육 아카이브 등을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말하는 ‘경남교육 아카이브’란 온라인 공간에서 경남 교육 자료를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 형태로 구축한 플랫폼의 형태를 의미함. 다양한 수업 자료와 교실 수업 사례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박람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자료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온라인 부분이 홈페이지, 중계 등으로 자료가 누적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형태에 해당함.

교사들의 수업 공유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학습 공동체가 산발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교사 간의 수업 자료 공유가 어려우므로, 경남 도 내 전 지역의 교육 자료를 아카이브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교실 수업 사례나 수업 활동을 간편하게 공유하고,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피드백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홍보하여 자발적인 수업 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초등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보고서가 게시되고 있는데, 보고서가 게시되고 있지만 공유되는 범위와 누적, 검색 등이 원활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인해 활용이 잘 되고 있지 못 함. 이러한 형태를 확장,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수업지도안 쓰기

| 공동수업지도안(1쪽) | 공동수업지도안(2쪽) |
|-------------|-------------|
| | |

온 책 읽기 수업 사례

| (온라인수업) zoom으로 읽은 내용에 대한 생각 나누기 | kahoot으로 읽은 내용 확인하기 | 재생종이로 한글 팻말 만들기 |
|---------------------------------|---------------------|-----------------|
| | | |

활동 후기

| | |
|------------------------|---|
| <p>경OO (당임, 40대)</p> | <p>독서단원과 창제(학급특색)시간을 활용하여 반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고 책갈피 만들기. 인상 깊은 장면 필통 만들기. 한글로 간단한 이름 짓기. 내용 파악 문제 풀기 등의 활동을 해보았다.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당시 시대 상황과 세종대왕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바른말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p> |
| <p>이OO (당임, 40대)</p> | <p>zoom으로 아이들을 만난 날. kahoot 앱을 함께 설치하고 간단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하였으나 스마트 기기가 2개 있어야 가능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최근에 전체 매일 등교하게 되어 컴퓨터실에서 아이들과 zoom으로 퀴즈 풀며 읽은 내용 확인하기 활동을 해보았다. 그동안 초정리 편지를 소중히 읽은 아이들 중에서 kahoot에 흥미를 느끼더니 점독하게 된 학생도 생겨나서 부듯하였다.</p> |
| <p>정OO (체육계단, 40대)</p> | <p>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키며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며 신체활동이 줄어든 아이들에게 삼각곤을 설치해 장애물 달리기를 하도록 하였다. 게임명을 '장운이. 토끼를 잡아라!'로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도착지점 안에 들어와야 우리 장운이가 잡은 토끼를 팔과 바꾸어 아버지께 쌀밥을 지어드릴 수 있다고 하였다. 스토리가 있는 달리기 활동으로 교사도 아이도 재밌게 활동하며 땀을 흘릴 수 있었다.</p> |

[그림 3-15] 2020.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보고서의 예시(마산 신월초)

[그림 3-15]는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의 자세한 활동 안내와 후기가 실려 있어 교사들의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함. 다만, 해당 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이 자료를 취합하여 한글 파일로 재구성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공유 받은 교사가 피드백 등의 소통을 할 수도 없는 형식으로 공유되고 있음. 자료의 제작이 보다 간편하

고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여야 함. 교육청 홈페이지보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공유 활동에서 자료의 온라인 공유가 쉬운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재구조화해 지속적인 자료보관소 역할을 하면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의 구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 사례 공개나 교육 활동 자료도 함께 아카이브할 수 있음. 자료보관소와 같은 형태를 검토하였을 때, 초반에 간단하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료가 아카이브가 편리하고 공유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3-16] ‘더불어 숲’의 교육활동 모음집 공유

충북 교육 소식지 ‘더불어 숲’은 교사 수업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이스크림 쌤블로그 세 곳에 SNS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 꿀팁,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학생자치, 진로교육, 환경교육, 독서교육, 역사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과학교육, 교육 잡담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누적하여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형태는 간단한 플랫폼이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누적하고 체계적으로 찾기 쉽게 구성하여 활용 범위를 넓힌 사례에 해당하여 참고할 수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자료의 구축이 교사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누적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17]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 화면

경남의 경우, 현재 시작 단계인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앞으로 경남교육 전체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구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자료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경남 교육 전체의 교육활동이 누적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은 2020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가 어렵게 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격수업 자료가 만들어지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의 종류가 e학습터, 카카오톡, 밴드,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등 제각각이 된 배경에서 등장한 플랫폼으로, 2021년 현재 이 플랫폼이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온라인 교육 행사와 연수, 컨퍼런스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교과 수업과도 연계가 용이함.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은 한컴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자료의 저장과 편집이 가능하며, 유프리즘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와 자료의 공유와 재편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플랫폼이 학생들의 원격 수업의 기본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정보와 학교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강연회 등도 제공할 수 있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

교육 자료와 수업 공유를 위한 교사 수업 축제 형태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개최하고 있는 수업 나눔 한마당이 있음. 2020 수업나눔 한마당은 온라인으로 수업 나눔 및 성과자료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의 수업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사례를 통해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



[그림 3-18] 수업나눔 한마당 홍보 자료

2020년도 해당 행사는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수업 공유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4일에 걸쳐 수업나눔 토크와 자료 나눔을 실시하였음. 실시간 수업 나눔 토크는 수업 사례 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례, 수석교사 1:1 컨설팅, 학교 평가사례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220개의 강좌, 90명의 나눔교사가 참가하였으며 희망하는 교사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나눔교사들이 ‘아이톡톡’에서 개별 수업나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참여 교사들과 수업을 나눔으로써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교사들의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기능하였음.

교사들의 수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구름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실 축제도 교사들의 수업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한 사례로 주목할 만함. 구름 학교 교실 축제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사들의 성장학교로 교사들의 자발적 신청과 운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구름학교는 2014년 경남 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으며, 교사 성장학교와 PBL(Project Based Learning)의 확산과 지원, 학교 안팎의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돕는 청세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임.

구름 학교의 교실 축제는 오프라인 형태의 수업 나눔 모델로 주목할 만하고, 참가자들이 수업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사례 보고나 전시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그림 3-19] 구름학교 교실축제 홍보 자료

해당 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교육연수원 전체를 교실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여 초·중등을 대상으로 일자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일정을 마련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음. 배움과 성장의 교실 채우기(학생의 입장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두근두근 체험 교실(실습과 체험 프로그램), 게릴라 교실 토크(수업 친구 선생님의 교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교사밴드 공연, 교육강연(강연과 쌍방향 토론), 교실 토론(미리 안내된 주제에 따라 토론하기), 수업아이디어 콘테스트, 수업카페, 배움 장터(학생활동 과정물을 부스 형태 운영) 등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토론과 실습 등 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위와 같은 오프라인 수업 나눔 축제의 형태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나 발표 성격을 띠게 되기 쉽고 해마다 개최하여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사 대상의 수업 공유 축제를 따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기존의 교사 대상의 수업 축제를 혁신적인 수업 사례와 다양한 수업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와 같이 한 장소에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축제의 형태보다, 교사 간의 수업 사례를 나누고 수업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 형태가 '나눔중심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나눔의 날'을 통한 수업 공유 활동임. 해당 형태는 학교의 수업을 외부로 개방

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참관 후 수업 나눔 협의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실 수업 개선과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업 나눔 한마당’이나, ‘교실 축제’의 형태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반면, 이와 같은 형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들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를 참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교실 수업의 문턱을 낮추고 교사 간의 수업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일관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음. 교사들의 수업 나눔이 성과 발표나, 전시 및 평가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 수업의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여 실질적인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 나눔의 날과 같은 공유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교사들이 공동체나 축제 등을 통해 수업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연구와 나눔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업 공동체 운영 시간 등의 확보, 수업 연구나 수업 나눔 참관을 위한 출장, 업무 적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 또한 필수적임. 수업 나눔이나 연구가 또 다른 이벤트나 성과 발표, 준비와 업무로 이어지지 않고 교사들의 교실에 대한 고민과 경험의 공유를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면담자 B: 현재도 학교에 찾아가서 공개하는 수업을 볼 수도 있고, 교사 간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무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처리 시간이 부족할 때 뒤로 밀리는 것은 수업 연구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문 처리나 학생 상담 등) 다른 일이 바쁘기 때문에 수업을 하던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교사의 수업 공유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수업나눔 참여에 대해 연수 시간 인정, 강사비 지급 등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학교 수업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업 나눔을 위해 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사 수업 나눔의 날’ 등을 지정하여, 가정의 날과 같이 학생들의 이른 하교 이후 교사들이 타교에 방문하도록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면담자 A: 교육 행사나 수업 나눔 참여자는 연수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에 참여할 경우 수업 교체나 대강, 출장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활발한 참여가 일어날 것입니다.

면담자 H: 수업 공유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교에 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기 싫은 사람이 강제로 하게 떠맡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행정 업무와 담임 업무에 치이는 와중에 자발적 동기 부여만 기다리기도 힘들긴 합니다. 학교별로 수업 공개를 하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 경감이나, 연수 강사비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수업 시연을 보는 것은 강의식 연수보다 더 큰 배움이기 때문에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들이 연수담당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지원 방안을 확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무행정지원팀 등의 지원만으로 업무 경감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갈수록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을 고려하여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 연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사들은 교사 간의 수업 공유 활동이나 수업 축제 이외에 혁신적인 수업 사례나, 최신 교육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 받을 수 있길 희망하였음. 새로운 교육 정보를 간단하게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타 지역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업 혁신을 위한 양질의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면담자 H: 온라인 연수도 좋지만, 참여 정도와 효과를 생각하면 경남 실정을 반영하는 집합 연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면 실시간 쌍방향 연수도 좋겠습니다.

면담자 I: 온라인의 공유는 손쉽게 할 수 있으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므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J: 경남교육연구정보원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협력하여 경남 이외의 교육 동향과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연수를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의 연수 체제는 교사의 관심 분야에만 치중되거나, 기본적인 의무 연수 이수가 주가 되기 쉬움. 이런 체제에서는 교사가 새로운 교육 정보를 접하는 것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정보를 간단한 영상

연수로 재구성하여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자주 들어가서 연수를 이수해야하는 연수원 사이트나 경남교육청 온라인 전달 연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음. 새로운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따로 깊이 있는 양질의 연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학교 성과와 수업 사례의 전시가 아닌 교사 간의 수업 공유와 깊이 있는 소통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교육 정보를 다양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사 축제나 수업 박람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업 혁신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보호자와 시민 사회로, 소통과 공유의 확대

다양한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실 수업 사례가 학교 범위 밖으로 확장되어 보호자와 그 외 일반 시민 사회에까지 공유되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경남교육청의 성과와 정책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로 다뤄지지만 실제로 공유와 소통의 효과나 범위는 한정적임.

보호자와 일반 시민 사회까지 학교 교육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 문턱을 낮추어 앞서 논의한 ‘수업 나눔의 날’ 등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음. 이는 기존의 학교 단위의 ‘수업 공개의 날’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기존에 경남교육박람회에서 공개하던 선도 학교 우수 사례 등의 공개를 학교에 진행하는 형태에 해당함. 거점 학교나 선도 학교를 외부에 개방하여 공유할 수 있음. 또한 앞서 논의한 학생 동아리의 보호자와 일반 시민 사회 등과의 연계 활동은 일회적인 수업 공개나 홍보 활동보다 더 깊이 있는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활동에 해당함.

여기에서는 앞서 검토한 공유 활동 외에 다양한 교육 활동과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외부로 공유하여 경남 전 지역의 수업 공유 활동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우선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경남교육박람회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온라인교육박람회가 전면적으로 시도된 사례들이 있음. 그러나 오프라인 박람회를 소수로 진행하면서 온라인에서 개막식과 부스를 이동하면서 중계만 하거나, 다양한 영상을 나열하여 전시하여 박람회처럼 구성한 경우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A교육청에서 개최한 온라인교육박람회의 경우, 다양한 영상을 나열한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대부분의 영상이 조회수를 100회를 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임. 이는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프라인의 행사를 그대로 중계한 형태와 소통 경로가 부재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2021.7.29.검토).

B교육청의 온라인교육박람회의 경우는 개막식은 오프라인 행사를 중계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후 직업 학교 소개라는 주제별로 적합한 영상 콘텐츠를 따로 제작하고 현장 부스 중계 등과 적절하게 병행하여 구상한 형태로 개선된 방식에 해당함. 이 사례는 행사의 진행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을 이용하여 참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도록 구성하여 비교적 참여도가 높았던 사례에 해당함. 2021년 7월 탑재된 후 2주 경과 시점에 9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음. 비슷한 시기에 탑재되고 구성이 유사한 C교육청의 사례에도 7천회가 넘게 조회됨(2021.7.29.검토)

다문화에 관한 온라인 박람회 사례는 2020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의 경우에서도 살펴 볼 수 있음. 해당 온라인 박람회는 오프라인 공연과 부스 운영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분야별로 나열해두었으나, 2020년 9월에 탑재한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10도 되지 않는 영상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의 조회수가 50 내외로 기록되어 있음(2021.7.29.검토). 다양한 교육 활동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와 자료의 활용도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홍보가 미흡한 것을 비롯하여, 영상 매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단순한 중계와 편집, 참여자와 소통 부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온라인 박람회의 학생 참여 정도를 볼 수 있는 조회수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교육청 별로 홍보 방식이나 지역 축제의 역사 등이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 되면서 해당 기간에 온라인 수업 과제 등으로 학생들을 의무 참여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어 실질적인 소통과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경남교육박람회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해마다 다른 온라인 공간(도메인)에서 진행되어 체계적으로 누적된 형태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또한 2020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의 온라인 공유 부분의 검토 결과를 보면, 단순한 오프라인 행사의 중계와 주제별로 편집된 영상의 나열과 같은 영상 매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방식으로는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양한 온라인 박람회의 사례를 볼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공유하고자 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함.

첫째,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프라인의 행사를 중계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 적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다양한 교육 활동과 정책 홍보 내용을 영상 매체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상 제작의 부담 등으로 개막식이나 부스 운영 등의 오프라인 행사와 병행하여 온라인 중계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단순히 오프라인 행사를 그대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관람객이 교육박람회를 관람하는 브이로그 형식을 취하는 등 영상 매체에 적합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온라인 중계의 경우에도 그대로 송출되도록 하는 것보다 자막이나 효과음 등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행사의 진행이나 콘텐츠의 제작에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제작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관람객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되어야 함. 학생들이 진행과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체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과 활동을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관람객 또한 소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 기간에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중계 형태가 병행되는 박람회보다는 앞서 논의 되었던 경남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이나 경남교육 아카이브와 같은 자료 누적과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에서 ‘교육 활동 모음집’ 혹은 ‘온라인 홍보관’ 등과 같은 형태로 온라인 홍보와 교육 활동 공유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로, 행사를 위한 사례 발표를 위한 영상 제작과 준비가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경남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수업 사례들이 홍보되고 공유 및 소통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운영 및 홍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자발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활용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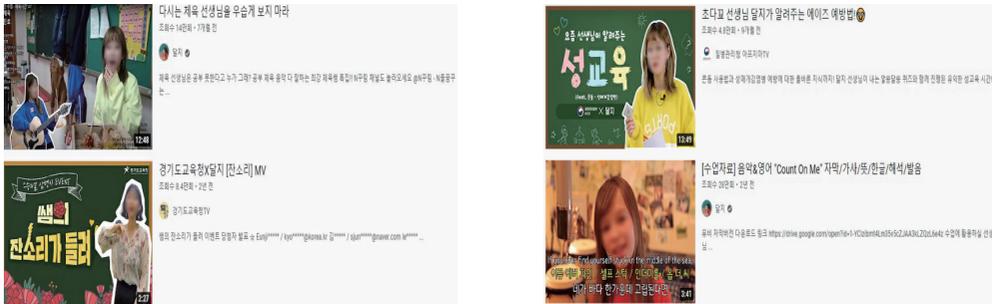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은 특정 기간에 일회적으로 제공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에 불필요한 흔적만 남기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수업 사례가 온라인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공유될 수 있고, 특정 기간 집중 운영과 홍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운영 기간 이후에도 체계화하여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공유가 지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에 콘텐츠

츠의 제작, 공유, 소통을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교육 활동의 공유에 있어서 그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현장성이 확보할 수 있으며, 준비나 제작 과정에서 의무적인 참여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1인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학생과 교사 유튜버 등이 등장하여 이미 다양한 홍보 및 공유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 경남 지역의 역량 있는 개인 유튜버나 SNS 계정 운영자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보호자, 교사에게 공모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학교나 동아리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을 공모하여 교육청 혹은 권역별 SNS 및 유튜버의 서포터즈 등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 하는 것도 가능함. 이런 경우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등이 크게 발휘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미 다양한 개인 유튜버나 SNS 계정 운영자 등이 교육청과 함께 활동하며 수업 사례와 교육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교 외부에도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사례가 있음.



[그림 3-20] 교사 유튜버의 활동 사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교사 유튜버 ‘달지쌤’은 교사의 일상이나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관리청과도 연계하여 성교육 영상을 탑재하기도 하였음. 특정 교과 교사에 대한 편견 등도 소개하는 등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교사들에게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바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음. 해당 유튜브 채널은 많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며 2021년 6월 현재 구독자가 41만 명에 달함.



[그림 3-21] 유튜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브이로그를 검색한 화면

최근 학생 유튜브도 증가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홍보와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 특정 학교의 특성이나 일과가 궁금한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생활이나 학습법, 친구 관계 등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 이런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 활동 홍보와 연계하면 학생들 간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공감대를 넓히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제 선정과 제작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 서포터즈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활동 홍보의 차원에서 촬영이나 게시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영상 제작비나 게시물에 관한 원고료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온라인 기반 활동을 위해서 수업 사례 등의 콘텐츠가 있으나 영상 제작 및 편집, 이미지 제작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촬영·편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학생과 교사 외에도 보호자나 주민 등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교육적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이런 형태는 일시적인 홍보와 전시 행사보다는, 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역 인재를 활용하고 제작 및 공유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의 온라인 박람회 중계 형태에 비해 친숙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인 홍보 기능의 수행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봄.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의 특성상, 지역 간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경남 내 소외 지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교육 공유 활동이 전 지역에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제4장 결론

제1절 | 요약 및 논의

1. 대안의 요약

본 연구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온라인 설문 조사와 교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였음. 본 연구의 각종 분석 결과와 시사점 및 제시된 대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남교육박람회는 경남교육의 성과와 우수 사례 등을 전시하여 경남교육의 특색과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전시와 공연 및 부스 운영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트렌드와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였음. 그러나 모든 학교급과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도 교육청 중심으로 창원 지역에서만 개최되어, 대상자에 맞춘 질 높은 체험을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지역 간의 접근성의 격차가 크게 작용하였음. 또한 체험 부스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새로운 교육 정보나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기 어려워진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참가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함으로써 대규모의 전시 행사가 일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사로 전면적 변화가 필요함.

이에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와 같은 대규모의 전시 행사의 형태를 해체하고 참여자와 지역, 즉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마을의 일상 교육 속에서 공유와 소통 중심의 활동으로 재편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개별화와 일상 교육의 강화,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 강화는 경남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과도 부합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별화·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개별화된 교육과 개인의 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기능인 다양한 경험 제공, 경남교육의 홍보, 교육과정 지원의 기능을 분산하여 학생과 마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강화

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체험처가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관을 설립하거나, 폐교나 학교의 빈 공간을 재구성하여 체험관 분원을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험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센터 건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학교에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둘째, 학교와 마을 중심의 작은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더 많은 구성원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 학교 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학생 자율 동아리 등 교육공동체의 일상 속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소규모 행사를 통해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별 소규모 축제 등 다양한 소규모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셋째, 교육 활동의 공유를 위해 기존의 교사 간의 수업 공유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또한 학교를 넘어 교육공동체 간의 교육 활동 공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쉽고 편리하게 교육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2. 검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설문과 경남교육박람회의 기획, 운영, 참가 등에 관련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여 대안을 도출하였음. 그러나 경남교육박람회가 경남 전 지역의 모든 학교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던 행사인 만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입장과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와 대안에 관하여 다각도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의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제언의 바탕으로 삼고자 함.

첫째, 창원 중심의 대규모 행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남교육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지역교육청별 개최 혹은 권역별 순회 개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논의 결과, 권역별 혹은 지역교육청별의 교육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

는 행정 업무의 처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단위 학교에 준비 및 참여로 인해 정상 교육 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한다면 지역 간의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도 교육청 중심의 행사에 비해 내용의 질은 더 하락하고 행정적 부담은 더 늘어난 행사의 난립이 될 수 있고 기존의 경남교육박람회를 규모를 축소하고, 주관 기관이 바뀌었을 뿐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논의됨.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및 타 지역교육청의 사례 검토의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전시 공간 등이 교사 외의 구성원에게는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다양한 기관에서 상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전시 및 체험 공간 마련은 대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교육청 및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조치로 제시됨.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료의 누적과 체계화를 위한 아카이브 사이트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e-학습터나 EBS 등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교사들이 사설 업체의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행정력과 예산을 사용하여 경남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하여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아이톡톡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 이후에 활용도나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음.

넷째, 본 연구에서 사례를 검토한 수업 나눔 한마당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교사 간의 수업 공유나 소통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음. 따라서 수업 나눔 한마당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및 보완을 전제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사 간 자율적 수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외부 강의, 단기 연수 등의 최신의 교육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다섯째, 미래교육의 강화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 된 경험의 제공과 정보 제공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의 전환, 공유와 소통 등의 측면만 부각된 경향이 있음. 미래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가속화 될 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미래교육’이라는 것의 구체적 형태와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됨.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장 지원 및 연수를 확대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의령 설립 예정) 혹은 미래교육 선도학교를 개방하는 등 미래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봄.

제2절 | 정책 제언

경남교육박람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별화와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형태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의의도 분명히 존재하나,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개별화·다원화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체험 등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연과 부스 등이 혼합된 대규모 전시 행사가 지닌 한계와 부담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형태를 해체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기능을 분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미래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첫째,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에 해당하며, 문화 체험의 기회가 풍부하지 않고 지역 간의 격차도 큰 경남의 상황에서 권역별로 다양한 체험관을 설립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권역별로 체험관을 확대 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구성하는 것은 경남 도 내 전체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함. 단순한 센터 세우기가 아닌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수립 과정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 대안으로는 기존에 설립된 체험관의 분원 형태를 소외 지역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학교와 마을 중심의 작은 행사를 확대하고자 공간 혁신 학교를 확대하여 학교 공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의 주체적인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작은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 동아리 간의 연합 활동이나 시민 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동아리 축제 등의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의 교사 간의 자발적인 수업 공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더불어 교실을 넘어 수업 공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온라인 공간에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는 경남교육미래지원플랫폼(아이톡톡)이나 유튜브 등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경남교육 아카이브 등 새로운 형태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음.

넷째,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에 미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계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연수나 강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구현이나 기술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교육 선도학교 개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미래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함.

참고문헌

- 경남교육연구정보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경상남도교육청(2018). 제7차 경남교육발전계획(2019-2022).
- 경상남도교육청(2021). 2021 주요 업무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21). 2021 경남교육.
- 구경호·박영식·위미나·이희진(2020). 코로나19 이후 경남미래교육 전략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차규(2019). 1차 산업혁명과 박람회(1798-1900). 인문과학연구논총 40(3).
- 배영임·신혜리(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2020.5. 1-26. 경기연구원.
- 이동혁·김상춘·박남제(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교육 환경을 대비한 블록체인 기반의 학습 플랫폼.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집 18. 한국정보기술학회.
- 이용길(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사유. 월간 공공정책 178. 2020.8. 26-29. 한국 자치 학회.
- 장혜승(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 전망. Future Horizon 2020, 10, 36-4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숙(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 방송 학회.

[부록 1] 온라인 설문지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올해 마지막으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경남교육박람회의 빈 자리를 채우고, 학생 여러분이 찾아가고 싶고, 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행사를 만들기 위한 설문입니다.

그동안의 경남교육박람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행사를 만드는 데에 학생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즐겁고 유익한 행사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21년 5월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이선미

<참여자 정보 영역>

1. 본인의 해당 학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4~6학년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거주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성 ② 거제 ③ 거창 ④ 김해 ⑤ 남해
⑥ 밀양 ⑦ 사천 ⑧ 산청 ⑨ 양산 ⑩ 의령
⑪ 진주 ⑫ 창녕 ⑬ 창원 ⑭ 통영 ⑮ 하동
⑯ 함안 ⑰ 함양 ⑱ 합천

<설문>

3.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 경험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 ①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여하였다.
② 학교 등을 통해 단체 참석하였다.
③ 부스 운영, 공연 등의 주체로 참석하였다.
④ 참석 의사가 없으나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다.
⑤ 참석 경험이 없다.

4.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교육 내용이 유익하다.
②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많다.
③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좋다.
④ 다른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롭다.
⑤ 토론 대회나 말하기 대회 등을 볼 수 있어서 좋다.
⑥ 지역 기업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
⑦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로봇이나 드론 같은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서 좋다.
⑧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다.
⑨ 기타

5.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창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
- ② 참여할 공연, 체험 등이 많지 않다.
- ③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만하고 집중하기 힘들다.
- ④ 새로운 것이 없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라 흥미롭지 않다.
- ⑤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⑥ 기업, 지역의 다른 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 ⑦ 기타

6. 우리 지역(경상남도)에 학생을 위한 체험, 전시회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아니다.

7. 학교 선생님의 경남교육박람회 준비로 수업에 방해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기타

8. 학교에서 경남교육박람회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기타

9. 우리 동네에서 교육 행사가 열린다면 참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 ② 없다.

1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교육행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② 따로 하는 것이 좋다.

11.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교육 행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② 따로 하는 것이 좋다.

12. 온라인(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3.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에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4. 학생이 교육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로 보는 교육 행사가 있다면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등 참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5. 유명 교육 인사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면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6. 경남 교육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린다면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7.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행사
- ② 여러 장소에서 나누어서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8.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매월 1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 ② 경남의 모든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수 교육 사례

19. 학교 밖에서 하는 학생 동아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아니다.

20. 학교 밖에서 하는 학생 동아리의 자량이나 발표할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족하다.
- ② 아니다.

21. 다음 중 이미 가보았거나 가고 싶은 곳을 골라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 ② 교육 세미나, 포럼 등 대면 학술 행사
- ③ 온라인 학술 행사 및 온라인 교육박람회(대전미래교육박람회, 대구직업교육박람회 등)
- ④ 진로 진학 특강 및 박람회
- ⑤ 교육 전문가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
- ⑥ 식물 재배, 목공, 요리 교실, 안전 체험 교실 등의 다양한 체험
- ⑦ 수학 과학 체험관
- ⑧ 음악회, 전시회 등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⑨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한 교육 행사
- ⑩ 인공지능, 기후 위기, 포괄적 성교육 등 시의성이 높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행사
- ⑪ 학교 외 학생, 학부모 교육 활동 관련 동아리(모임)

22. 다음 중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주세요.(중복 응답 가능)

- ① 교실 수업의 혁신
- ② 학교 행정 개선
- ③ 교육 복지
- ④ 생태 환경 교육
- ⑤ 인공 지능, 4차 산업 혁명 등에 관한 교육
- ⑥ 다문화 및 세계 시민 교육
- ⑦ 인권 및 포괄적 성교육
- ⑧ 문화 예술 관련 교육
- ⑨ 학교 폭력, 학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

- ⑩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련한 교육
- ⑪ 체육 및 다양한 야외 활동 등
- ⑫ 기타

23.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4. 그 외에 박람회의 형태를 벗어난 ‘교육 활동 공유의 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주시시오.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연구에 관한 설문입니다.

경남교육박람회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경남교육청과 경남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지속 여부와 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경남교육박람회를 마지막으로 박람회를 마무리 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육 행사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중한 시간에 주신 답변은 더욱 유익하고 새로운 교육 행사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21년 5월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이선미

<참여자 정보 영역>

1. 자녀의 해당 학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1~3학년
- ③ 초등학교 4~6학년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⑥ 기타

2. 거주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성 ② 거제 ③ 거창 ④ 김해 ⑤ 남해
- ⑥ 밀양 ⑦ 사천 ⑧ 산청 ⑨ 양산 ⑩ 의령
- ⑪ 진주 ⑫ 창녕 ⑬ 창원 ⑭ 통영 ⑮ 하동
- ⑯ 함안 ⑰ 함양 ⑱ 합천

<설문>

3.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 경험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 ①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여하였다.
- ② 학교 등을 통해 단체 참석하였다.
- ③ 부스 운영, 공연 등의 주체로 참석하였다.
- ④ 참석 의사가 없으나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다.
- ⑤ 참석 경험이 없다.

4.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교육 내용이 유익하다.
- ② 학생을 위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이 다양하다.
- ③ 우수 학교 사례, 교육 관련 학술 행사가 있어 도움이 된다.
- ④ 각종 대회나 공모전이 학생에게 유익하다.
- ⑤ 기업, 지역 사회 등의 참여로 진로, 진학 정보 등이 도움이 된다.
- ⑥ 최신 교육 트렌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⑦ 경남교육청의 성과와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⑧ 기타 (혹은 참석 경험 없음)

5.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 ②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다양성 부족
 - ③ 참가자의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
 - ④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
 - ⑤ 학생, 학부모 동아리 등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부족
 - ⑥ 기업, 지역사회 등의 참여 기회 부족
 - ⑦ 기타
6. 경남 도 내에 유치원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의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아니다.
 - ③ 현재 해당 사항이 없거나 모르겠다.
7. 경남 도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아니다.
 - ③ 현재 해당 사항이 없거나 모르겠다.
8. 경남 도 내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아니다.
 - ③ 현재 해당 사항이 없거나 모르겠다.
9. 교직원의 교육박람회 준비 및 학생들의 단체 관람 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 나의 거주 지역(시, 군 단위)에서 교육 행사가 개최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학교급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등)

- ① 긍정적이다.
- ② 부정적이다.

12.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체험 행사 / 학부모 행사 / 교사 행사 등)

- ① 긍정적이다.
- ② 부정적이다.

13.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4.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에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5. 영상 공모전 등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하여 유튜브 등으로 중계한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6. 유명 교육 인사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7. 경남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8. 다음 중 교육 우수 사례나 교육 관련 학술 행사를 관람한다면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생동감 있고 질문 등 소통 기회가 풍부한 대면 행사
- ② 여유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참여 가능한 온라인 행사

19.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볼 수 있는 박람회
- ② 장소를 분산하여 소규모로 깊이 있게 제공되는 전시, 공연, 체험 등

20.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매월 1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 ② 경남의 모든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수 교육 사례

21. 학부모 동아리 등 일상적인 교육 관련 네트워크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아니다.

22. 학부모 동아리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부족하다.
- ② 아니다.

23. 다음 중 이미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의사가 있는 곳을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 ② 교육 세미나, 포럼 등 대면 학술 행사
- ③ 온라인 학술 행사 및 온라인 교육박람회(대전미래교육박람회, 대구직업교육박람회 등)
- ④ 진로 진학 특강 및 박람회
- ⑤ 교육 전문가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
- ⑥ 식물 재배, 목공, 요리 교실, 안전 체험 교실 등의 다양한 체험
- ⑦ 수학 과학 체험관
- ⑧ 음악회, 전시회 등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⑨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한 교육 행사
- ⑩ 인공지능, 기후 위기, 포괄적 성교육 등 시의성이 높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행사
- ⑪ 학교 외 학생, 학부모 교육 활동 관련 동아리(모임)

24. 다음 중 경남의 체험, 전시, 학술 행사 등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실 수업의 혁신
- ② 학교 행정 개선
- ③ 교육 복지
- ④ 생태 환경 교육

- ⑤ 인공 지능, 4차 산업 혁명 등에 관한 교육
- ⑥ 다문화 및 세계 시민 교육
- ⑦ 인권 및 포괄적 성교육
- ⑧ 문화 예술 관련 교육
- ⑨ 학교 폭력, 학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
- ⑩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련한 교육
- ⑪ 체육 및 다양한 야외 활동 등
- ⑫ 기타

25.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6. 그 외에 박람회의 형태를 벗어난 ‘교육 활동 공유의 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주시시오.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연구에 관한 설문입니다.

경남교육박람회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경남교육청과 경남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지속 여부와 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2021년) 경남교육박람회를 마지막으로 박람회를 마무리 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육 행사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점은 개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육 행사의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에 주신 답변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행사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21년 5월

◦ 문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이선미

<참여자 정보 영역>

*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경남교육박람회 관련 지도하였던 해당 학년(혹은 주로 지도하시는 학년)

- ① 초등학교 1~3학년 ② 초등학교 4~6학년
-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2. 거주 지역

- ① 고성 ② 거제 ③ 거창 ④ 김해 ⑤ 남해
- ⑥ 밀양 ⑦ 사천 ⑧ 산청 ⑨ 양산 ⑩ 의령
- ⑪ 진주 ⑫ 창녕 ⑬ 창원 ⑭ 통영 ⑮ 하동
- ⑯ 함안 ⑰ 함양 ⑱ 합천

<설문>

3. 경남교육박람회에 참석 경험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 ①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여하였다.
- ② 학교 등을 통해 단체 참석하였다.
- ③ 부스 운영, 공연 등의 주체로 참석하였다.
- ④ 참석 의사가 없으나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다.
- ⑤ 참석 경험이 없다.

4.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

- ① 교육 내용이 유익하다.
- ② 공연, 전시, 체험 등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거리가 많다.
- ③ 우수 학교 사례, 교육 관련 학술 행사가 있어 도움이 된다.
- ④ 각종 대회나 공모전이 학생에게 유익하다.
- ⑤ 기업, 지역 사회 등의 참여로 진로, 진학 등에 있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⑥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수 있다.
- ⑦ 경남교육청의 성과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⑧ 기타

5.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

- ①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 ②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다양성 부족이 부족하다.
- ③ 참가자의 밀집도가 높아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다.
- ④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 ⑤ 학생, 학부모 동아리 등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 ⑥ 기업, 지역사회 등의 참여 기회 부족 기회가 부족하다.
- ⑦ 박람회의 준비나 참석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 ⑧ 기타

6. 지도하시는 해당 학년의 학생을 위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 활동 제공이 경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아니다.
- ③ 해당 사항이 없다.

7. 교직원의 교육박람회 준비 및 학생들의 단체 관람 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8. 나의 근무 기관의 소재지에서 교육 행사가 개최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학교급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분리 등)

- ① 긍정적이다.
- ② 부정적이다.

10.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로 교육 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체험 행사/ 학부모 행사/ 교사 행사 등)

- ① 긍정적이다.
- ② 부정적이다.

11. 온라인 앱,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2. 아이톡톡(유프리즘), 줌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교육 행사에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3. 영상 공모전 등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하여 유튜브 등으로 중계한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4. 유명 교육 인사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5. 경남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6. 다음 중 교육 우수 사례나 교육 관련 학술 행사를 관람한다면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생동감 있고 질문 등 소통 기회가 풍부한 대면 행사
- ② 여유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참여 가능한 온라인 행사

17.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볼 수 있는 박람회
- ② 다양한 장소에 떨어져 있어서 소규모로 깊이 있게 제공되는 전시, 공연, 체험 등

18. 다음 중 더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매월 1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 ② 경남의 모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수 교육 사례

19. 학교 외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등 일상적인 교육 관련 네트워크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아니다.

20. 학교 외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부족하다.
- ② 아니다.

21. 교사 동아리, 수업 나눔 모임 등 교사의 교육 관련 모임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2. 교사 동아리, 수업 나눔 모임 등 교사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부족하다.
- ② 아니다.

23. 다음 중 이미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의사가 있는 곳을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 ② 교육 세미나, 포럼 등 대면 학술 행사
- ③ 온라인 학술 행사 및 온라인 교육박람회(대전미래교육박람회, 대구직업교육박람회 등)
- ④ 진로 진학 특강 및 박람회
- ⑤ 교육 전문가의 특강이나 토크 콘서트
- ⑥ 식물 재배, 목공, 요리 교실, 안전 체험 교실 등의 다양한 체험
- ⑦ 수학 과학 체험관
- ⑧ 음악회, 전시회 등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⑨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한 교육 행사
- ⑩ 인공지능, 기후 위기, 포괄적 성교육 등 시의성이 높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행사
- ⑪ 학교 외 학생, 학부모 교육 활동 관련 동아리(모임)

24. 다음 중 경남의 체험, 전시, 학술 행사 등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실 수업의 혁신
- ② 학교 행정 개선
- ③ 교육 복지
- ④ 생태 환경 교육
- ⑤ 인공 지능, 4차 산업 혁명 등에 관한 교육
- ⑥ 다문화 및 세계 시민 교육
- ⑦ 인권 및 포괄적 성교육
- ⑧ 문화 예술 관련 교육
- ⑨ 학교 폭력, 학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
- ⑩ 외국어, 해외 유학 등에 관련한 교육
- ⑪ 체육 및 다양한 야외 활동 등
- ⑫ 기타

25. 그동안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6. 그 외에 박람회의 형태를 벗어난 ‘교육 활동 공유의 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주시시오.

[부록 2] FGI 질문지

2021.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F.G.I.(초점집단인터뷰)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2021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경남교육박람회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을 모색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경남교육박람회와 관련한 경남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초점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하를 전문가로 모시고 그동안의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를 반영하여 유의미한 기능을 이어가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남교육계의 새로운 교육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미리 보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 내용에 답변하셔서 업무메일 또는 공직자 메일(sm10068@korea.kr)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성 중에 문의 사항 있으시면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이선미(055-269-070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이선미

| 영역1 |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
|------------------|--|
| 배경 | <p>경남교육박람회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창원 개최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집합 행사로 심도 깊고 다양한 체험이 어려우며, 교사들의 사전 준비로 단위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한계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박람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p> |
| 1-1. 경남교육박람회의 경험 | <p>경남교육박람회의 주최, 부스 운영, 우수 사례 발표, 학생 인솔, 관람객 참여 등 경험하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주시요. (여러 시각에서 제시해주셔도 좋습니다.)</p> |
| 1-2. 성과와 한계 | <p>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이어갈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1-3. 대안 | <p>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박람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활동의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p> |

| 영역2 | 경남교육박람회 의 대안 검토 - 학생 및 보호자 |
|------------------------|--|
| 배경 | <p>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부족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자주 접근할 수 있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전시·공연·체험의 확대, 지역별(권역별) 분산 소규모 축제 개최, 체험관 혹은 도서관과 연계한 상설프로그램 확대,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지원 및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대안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의견 부탁드립니다.</p> |
| 2-1. 전시 체험 및 정보 제공의 확대 | <p>(체험 운영 및 진학·진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학생 및 보호자는 경남 도 내에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전시, 체험의 확대와 진학·진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2-2.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 <p>(체험 운영 및 진학·진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에 대한 지원 및 발표회 개최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의 교육 활동 공유를 돕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2-3. 온라인으로의 전환 | <p>(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경남 외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여 경남 내 소외 지역에 참여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온라인 교육 행사 전환의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2-4. 소규모·대상별 맞춤 | <p>(소규모·대상별 맞춤형 행사) 지역별(권역별), 교사·학생·학부모 대상별, 학교급별로 분리 개최 등 대상별로 나누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 |
|-------------------|--|
| 영역3 |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검토 교사 |
| 배경 | <p>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행사는 코로나19로 일반화된 온라인 수업은 물론, 4차 산업 혁명, 다원화되고 개별화된 시대 흐름 등 미래 교육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선도 학교 및 교육 우수 사례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남교육박람회는 전시 준비로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 시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며, 창원 지역 외의 교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p> |
| 3-1. 교육 우수 사례의 공유 | <p>(선도 학교 및 교육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서) 경남 전역의 교사 간의 교육활동 공유를 도우면서, 단위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 3-2. 새로운 정보 제공 | <p>(새로운 교육 트렌드 및 정보 제공) 경남 외의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정보를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 인쇄
2021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직무대리 장 중 용

기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 장 차 재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정 대 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유 병 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오 영 범

연구수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한 미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정 연 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위 미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희 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선 미

연구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 무 운 영 주 사 유 창 호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인쇄 꽃피는 열두달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0권

자체연구보고서

<https://gerii.gne.go.kr>